

추억(追憶) (회상기)

지금에서 이런 말은 하지 살자.

내가 이 글을 쓰자고 상앞에 앉아 경상한다 앞에 칼하고 아득하고
그것도 그걸 막에 있는 것이 짜이고, 둑을고 회색 된 나의 과거에서 그 무엇은
찾아 내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과 하물며 85년이란 긴 해가 지난
오늘에 와서. 그걸 이도 물구하고 놓고 하온 지난 나의 생애를 라들어 보려
한다. 그런데 끝내 새삼스레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글을 쓰려는가? 세상도 모르고 글을 쓸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나를 괴롭
한다. 쓸가 말가 하면 유품거리나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내가 어제
잠지나 신문을 위해 이 글을 쓰는가 아니면 그런 ^{새로가} 데로 였다 그저 나의 과거를
내 자신을 위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려는 것 뿐이다 누가 읽어 넣자고
하면 본여 줄 수도 있다 나의 과거를 세밀히 쓸 수 없다 그저 대충 쓸 라

고향 ㅅㅅㅅ

본인은 1910년 9월 6일(음력) 한복 중성군 계해년 ^{11월} 불산동 116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난해가 1마로 일제가 조선을 합령 했다.

불산동은 산간 지역지라 땅이 좁고 레마트고 둘이 많아서 1여동사를
못하고 주로 죽, 옥수수, 보리기하 작물을 심는다 농민들이 등이 허도록
온종일 고된 일은 하지 않고 늘 삼열리 그개를 넋기 기침들라 그래서
초근부터로 훈련하는 식량을 보낸다 그때는 제나라, 제땅, 제사람이라
고락은 잘이 하면서 오손도손 수십년 살아왔다

나의 부모도 물로 백이라 일끔식다가 산간 초목에서 10년을 살았다
풀앞에 깨우는 두리, 뿔나루 단대 빼기 허전, 틀각 많아 이것의
통틀어 두리점 재산이라 우리 집이 산길에 있었던 어느 데 여름에
큰 홍수가 나서 중성군 단대를 훑을었다 이때 산해가 빠지는 아침에
우리 집이 본래 무너졌다 이런 사건 가 날이 있었는데 말이지 날이
있었라면 온 식구가 물산 할 수 도 없었고 집을 담장 수리해야
했고 그래서 조부가 집수리를 하자고 산에서 나누 두리를 1에여 왔다
공교롭게도 이것이 술사를 듣는 눈에 띠어서 조부가 일본 청주 소이 가서
3개월 강제로 통을 했고 생전 그 누구를 꾸짖이 살던 할아버지 름기
돌아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적·한·화·장·계·으로 둑을이 ^{쓰리}나와서
와서 제멋대로 하다니하고 있다. 저 끌이 사냥하면서 어디로 가야
하겠나"고 그라신다

조부의 이 말들이 우리집이 이사하게 된 동기의 하나다.

조부는 한문이 아주 거역한 문이라는 손에 책을 들고 있었던 밤에
수시면서도 꿈속에 글 읽으시는 것을 내가 다이때 들었다 나도 조부에게서
천자를 배웠다 조부는 나보고 선하고 양심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한단 가르
쳐서였다. 조부는 유크를 특성화해 짚기는 문이 있다 그립이로 물구하고 한때
의 대명어 단니시였다. 이 대문에 순사들은 조부에게 눈을 걸고 있었던 이
눈치를 보면서 엄마 조부가 늘 물안하게 지내았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글연상이지만 절에는 부모의 제사를 지내자면 축술을
(기선을 칠하는 글) 써야스하고 봄이 되면 텁춘(한이라는 것을 써서 암주에
물어 준했다. 그때 우리마을에는 축술이나 텁춘서를 쓰는 문은 우리조부
한문 문이었다 조부가 이 마을 저마을 단니시면서 아이들끼리를 가르
쳐서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조부를 길이 경호했다.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 때 사랑에 가라고 하면 한사코 말을 들지 않고 누를
학교에 보내 알리고 레를 벌리고 한다. 그래서 이 훈이 학교가 있고 화령
이나 종성이는 학교가 있기도 했으나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못
보냈라.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자습했다고 한다.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문이 그 누구의 손을 알지 않고 글을 쓰고 보고 지어 남을 가르치기까지 했라.

한번은 할아버지가 나를 앞에 세우고 하시는 말들이, 여기서 보이는
제1마위가 무슨 마인전 네가 아느냐? 오늘 우리 제1마위 결이 가분라
자비는 어여기 가 있다" 하시면서 내 달을 이끌고 아위를 찾아갔다
이 아위에 대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봉산동에서 잘 보이는 그 높이가 거의 30미터에 달하는 아위가 솟아
있다 봉산동 사람들이 이 아위를 "선돌막이"라고 부른다 종성준 사람
치고 "선돌막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아위는 한라는 성공이 깎아
지를 드 이루어진 네모 만뜻한 아위 세개가 쌓여 있다 그런데 꼭 래 기
아위 이루어진 사람의 글 원쪽 말자국 흔적이 있다. 그런가하면 이 아위
에서 심여리 아량되는 곳이 이와 뚭갈은 아위가 우뚝 솟아 있다 이
아위 위에 사람의 품은 말자국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
하고 하는 말이 옛날 어느 한 장수가 이 아위에서 제1마위를 뛰여 넘는
1말자국이라고 말한다 또 이 아위 옆 큰 돌판이 장기판이 그리 여 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장수들이 뛰던 장기판이라고 한다.

그대로는 이 "선돌막이"를 보고 살자 그럴적이라 봉산동이 그립다

사람이 제 해를 둘 곳을 여겨 앓을 수 있겠는가!

한번은 아버지가 ..우리 지금까지 군군부부로 살아 왔다 이제 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외동들이 우리 땅을 짓밟고 있다 이것을 보고 안 앓을
수 없다 여기에서 무슨 일은 해야하겠지" 하시고 짐을 떠나니 그 뒤 두
달 만에 돌아 오셨다 그동안에 중국, 함께 러시아를 간 너 오셨다. 한 달
이후, ~~열~~^열 ~~세~~^세 짐과 열마 안 되는 가진 짐 술을 탈고 강장 떠날 차미를
한다. 이 소문을 듣고 나의 아저씨가 허와 아이들을 라하고 찾아 왔다
..형님이 그러나 가시면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놀고 산간 밭임니까" 하면서
왕원운과 우리도 같이 물었다. 이것을 그때 나희가 봇 어떤 미주 이라
이 주.

1916년봄에 아버지가 온식 솔들을 거느리고 징들 고향을 떠나 함께
러시아로 이사느렸다 그러나 여기도 산 설고 놀설은 화향이라 쓸쓸하고
휑꽝하다 누구 하나 눈도 거둘 려 보지 않는다 그래도 아버지가 삶을
찾아서 추풍 사사를 라돌아보았다. 그러나 찾수고 봄이니 징착 할 곳이
없으니 그 당시에 추풍 사사에 원호(황제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함) 인들 둬 살고 있었고 그들은 자본 ~~자본~~ ^{자본} 한 사람들이 엔다 자기들은
량1만이오 아주 번들은 산 뜻들이니니 잘 보고 앓았다

아버지가 살 곳을 찾아 미리저리 찾아 란시시다가 나중에 아주 중역한
중립여성이하는 마을로 찾아 왔다. 이 마을에는 원호인을 엎고 대개 구학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거기 30호 넘 되는 순전한 고려촌이라 차차 말
하겠지만 이 마을이 잡화 특령군 ^{개체} 본부로 됐다

이 마을에 남씨 한 호가 살고 있었고 그때도 통성이니 해서 우리에게
사랑방을 밀려주었고 하길 이집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집은
소, 말, 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만하면 괜찮게 사는 듯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땅에 들키를 드고 나가서 산 멀에서 서 있는
참나무 아래로 땔나무로 칠나왔다. 알고 보니 이집 주인 할머니가 짐이
무슨 사고가 생기게 되면 맘을 짚고 치운 갖추어 가지고 나와서 이 참나무에
처성들을 들이군 했고 그걸로 아버지가 나무를 잘나온 마로 그 날 밤이
마주간에서 말들이 서로 뛰고 차고하면서 악란 냉석 템파 주인 할머니가
이것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맡는 나무를 잘나와서 말들이 서로 싸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끌끌 떠 짐에서 나가라고 칠라 하는 수없이 이
짐에서 쫓겨났다

4

하늘이 무너지도 솟아날 구렁이 있라는 격으로 마침 이촌 개울 결에
여느 때 창고로 쓰라가 내려온 연침 하나가 있었라 어머지가 이 물집을
다수 수리하고 식솔들을 여기로 옮겼라 이 집이 나중에 득림 군들의 함고
무로 됐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하겠라

1918년 가을에 ^{한국에서} 모창한이 식솔들을 려라고 중심 창으로 올라
여물이 이촌에 와서 풍장 자기집에 예수교회를 열었다 이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호오일에 예수밀드려 이 집을 찾았라 차츰 교회가
크게 됐다. 어머지도 온 식솔들을 려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 조우는
한사코 간대하고 교회를 안 다니며 살라

주로 모창한이 기도했는데 그 줄거리는 이렇다

“다들 머리를 숙이ろ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끼하시고 지난 주 저희들이
‘없한 죄를 회개할 기회를’ 빼풀어 주시어서 감사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라를 ~~쓰~~ 빼앗기고 온갖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맡는 이 인간이 하루아끼 나라를 찾게 해주시옵
소서----- 아멘”

례매가 끌어끼되면서 어머지와 모창한이 모인 사람들은 땅에서
국내외 정체와 흑회는 조선독립에 관한 해 주아를 환기시키고 있다.
모창한 집이 외형은 교회나 내용은 선전실이었다. 교회가 ^{우리} 독자 뭇
됐다. 누구나 이스크 시기 고려사업학교가 열리자 모창한이 거기
가서 고려운전을 가르치었라. 그러다가 1920년에 해로 됐다
하긴 모창한 선생 ^문이나 사 ^한업학교에서 고려운전을 광고 일러
라 혼, 채동선, 정종식 ^한이나 ^한겁지 됐다 모창한의 딸아들
오 1명세가 사업학교를 졸업하고 문학기적이를 가지고 한창
발전하던 22살 때 해로 됐다 을을 나니 오 1명세가 악령고순을
못 이기어 육설에서 죽었라 한마디 오 1명세의 어머니는 고민하던 끝에
자살 ^한했다 그 이후로 모창한 가정이 절로 ^한살이가 악령을 쓰락친
시대 때 이와 같이 절족된 가정이 가수 많지라.

하도 두심고 뛰어난 일이라 비단을 쓰자고 하니 그 일의 새삼스 ^레 ^한 ^한 ^한
머리에 떠 오른라 잠간 말라겠라

이전 창끼러시이 때 악치즈(세관에서 일하는 자를 말함)가
고려사람들의 출입을 자조찾아 왔라 출입장들의 말들이 득똑치

못해서 그려 악치라고 물었다. “악치”가 온다는 소리만 들여도 사람들은 제각기 몸을 깜빡이며 특히 저희들이 더 무서워졌다 그걸도 그럴 것이 “악치즈”는 보기 두렵게 생겼다 대개 키가 크고 몸이 풍수하고 걸을 때 목에 준도를 차고 긴 채찍을 들었라 머리에는 둑을 헤어 끈을 만한 철제양이 달린 모자를 건방지게 쓰인다 어느때나 술에 열흘히 취해서 말두에서 땅장 그릴 때 걸길을 염두에 두면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한발로 다짜고짜로 술을 마라는 것이라 술이 엄두하고 하면 채찍으로 사정 엄두 갈기고 준도를 깨물고 자라는 폭식을 조조리 핥을 치밀라곤 한다 그러자 되면 누가내로 끊임을 가지온다, 핥을 가지온다 술은 가지온다 ~~야~~란이다 놔둘도 잘 알는다 미건 ~~화~~황제로써 애도하에서 고려 사람들은 살아온 사소한 실례의 하나다

우리는 그때 우리촌에서 멀지 않도 까자끼예미초 조시야 촌 아이들과 자로 싸울도 했라. 조시야 아이들은 우리보고 추미즈(좁쌀이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초르니 틀레브”(겁쟁이)라고 대꾸한다 서로 두들려 때는 일도 있었라 다이래는 ~~죽~~ 악소락 해서 이런 일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아이들 뒤틀에 간접한 일이었라 러시아 사람들은 성품이 육하고 인내심 있는 민족이라고 해서 절대 할것이 고려촌과 러시아 촌이 멀지 않게 살면서도 서로를 헤어 떤 싸울한 일이 있었라 이고적 화목하게 지냈다

~~여간에~~ 멀년지 흘라도 이런 짜는 차고 살라.

~~조부가 낙지질을 즐겨 하신다. 주로 헐团伙으로 산천어를 잡는다 한때는 조부가 나보고 “원일인리 산천어가 노란 대가리(러시아 사람을 “말닭”) 헐에 잘 듣고 헐의 헐을 죽여 헐의 헐을 죽여라”라는 조부의 “이 말씀을 듣고 노란 헐을 알기로 헐과 하루는 내가 아들을 데리고 러시아 촌으로 갔다 숲 속에 물을 감추고 조시야 아이를 기다렸다 풀 있노라며 아이하나가 나온다. 는 깜짝 사이에 그 아이를 물잡고 가득가지고 러리 헐을 잘 냈다 아이가 올기 시작한 뒤 대마밭에 짐이 뛰어온 뒤 조부에게 그 러리 헐을 트리었다. 그엔 러니 그 헐을 가지고 헐团伙을 뺏는다 그 후 조부가 이 헐团伙를 가지고 산천어를 험지 많이 잡았던가 내가 하도 이 산 해서 왜 노란 대가리 헐에 산천어가 잘 놓니까 조부와 숲에서 조부가 “나도 그 미끼는 흐를라 아마 그 노란 헐에서 고기가 좋아하는 법새가 나는 조양이라고 하셨다 내가 그 후 놓시질 준들과 떠미끼를 놓여~~

보았으나 땅에 끌어놓았던 나도 농사짓는 데 아파니 생각 같았어는
몇 걸 때운 것 같다

혁명전 고려촌이 사랑하지 않는 촌이 드물었지 중심장에는 사랑표가
없었지 그래서 나의 무친이 이촌으로 오자 꽃장 촌에 학교를 설립한
활동을 전개했지 속히 주민총회를 열고 이촌에 학교를 세울 문제를
총회에 제기하고 보다 이 문제를 만장 일치로 흠파했다 하긴 회의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지.. 저문(아버지들 말씀)이 학교가 무엇인지 알거나
하면서 저러는가. 학교점이 없지, 고원이 없지, 고과서가 없지 책상이
없지 '액자지에 한가지도 없는 형형한 곳에서 어떻게 학교를 세운다는
말인가' 하고 조롱했지

그러나 아버지는 그 누구의 말도 들지 않고 시작한 일을 그냥 계속 했지
어동리에 있는 8간 짐한채를 사가지고 수리에 착수 했지 목수들이
흙을 지붕을 짓기고 널미안지를 렸는지, 간판을 높은지, 책상을 짠지,
매질꾼들이 역을 바른지, 도역한지 우마차 있는 사람들은 원목들 살여
온다 학교길은 락는지 아이들은 운동장에 모래를 렸는지 올동리가
소리를 걸고 나섰지 지성이면 깊힐 데라고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은 못 하겠는가! 한 달이 빠져서 촌에 학교가 일어났지 학교
전면에 "우리학교"라고 큼지 쓴 현판이 걸리었지 사람들이 아진을
보고 너무 기뻐서 불렀지.

9월 초에 학교술이 열렸지 아이들이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모아
온다. 첫 삽학시간이 대국가로 시작된다 1. 2. 3 학년이 일어는데
우는 일도 없지 렸다. 선생들은 모두 내리(조선시)에서 온 분들이라
그때 있은 과목은 국어로 한자와 산술, 국어, 고려자리, 한문, 습자
도화, 일어, 치로 시간들이라 조선시가 죄온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지.

중심여행에 학교가 열린다는 소문이 그자자라자 약재거, 왕거우
남북십여향, 출발관 기차마을 들어서 아이들이 중심여행 학교로
공부 하려 왔지. 중동철도사연 때 영동이 된 김숙경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 했지~~ 회종학(조선인민전통생활체육장) 오기한 이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

우리는 그 당시에 1년 1년이 돌아오는 3. 1절 기념도 깊湛히 경축 했지
학생들이 해주기를 만들고, 대학특강 만세! 그리고 죽은 학장을 만들고
연간도 만들었다

맞이

기념식 학교 운동장에 마을 사람이라 모인 학생들이 해죽기를 높이 들고 준중 높이 서서 대한독립만세! 하고 운이 치친다 그렇게 되면 준중도 따라 대한독립만세를 부른다 시간이 되면 리명호 선생이 연단에 올라 눈을 썹인 열연을 ~~표~~한다

“동쪽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외노들이 우리 군수 강남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것을 그제 보고 있음을 수 있습니라 --- 하루가 ^{3.1 운동 때} 우리 땅에서 봄아냅시라 이 위영을 위해 줄기 끊임없사라 ~~마을에~~ 흘린 우리 피에들이 흘린 피는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같이 일어나 작과 싸우시라 --- 우리의 힘은 무진장함이라 대한독립만세!

준중이 호응한다

기념식이 끝나자 ~~마을~~ 학생들이 해죽기를 내 훈들 ~~연~~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한다. 학생들 사이에는 한때 안중근이 전총사격 연습을 하던 회차역 거리의 마을 앞에 와서 끌고 학생들이 모자를 벗고 마을 앞에 와서 끌고 뜨겁다

우리가 아이때 회차역 거리를 지나 가게 되면 ‘만둣이 그 아이’ 둘 데 가서 머리를 숙여 준 하던 일이 지금도 새롭다

회차역 거리는 물과 5C호에서 넘지 않은 작은 마을이라 그러나 1949년 하루인 정거장이가 2등 암문을 통솔한 안중근이 와 있었던 데 회차역 거리가 더욱 작기는 하지 만 역사에 오를 수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치라시에 가사는 흥성남, 끼르기지야 수도프를 제 4에서 사는 정 선길이 이 훈이가 살았던 마을 사람들은 나아 등 ~~전~~끼다.

내가 한국기자와 회차역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들으니 첫 소리 라고 하면서 큰 관심을 둘지 않라고 그러나 이래까지 아주 소식도 없던 데 모든 일이 그때가 있는 법이라 때를 놓치면 그만이다.

1922년 4월 29일에 일본군 한려단이, 독립군들이 5.1절을 준비 하느라고 한창 마미보내는 흔들면서 솔말판은 습격되었고 40시간이나 도적을 가한 뒤 40호가 되는 솔말판이 윤봉재 죽지가 됐다 그 결과 중요한 물건들과 인쇄기가 다�아 어렸다 이래 독립군 무리들이 저항 행군에 나가 있었고 히는한 무리만 남아 있었던 적군이 너무나 두세 해서 맞서 싸우지 않고 후퇴하였다.

이후 독립군 참모부를 중심여정으로 옮겼다 중심여정은 독립군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라 좌우에는 물을 산들이 있고 그

그 계곡을 따라 서쪽으로 한참 가게 되면 북심향, 남심여향이 화운
작은 마을들이 있고 풀려가게 되면 중죽으로 이어진 큰 산맥들이 일대
중심여향을 솔깔판사건천에도 득점준들이 지나온다. 당시에 우리
집에 리중점, 리연호, 황현오, 최후송, 최한석, ~~최현기~~, 조상렬
리옹, 최승한, 오기암 가하 육동한 연사들이 와 있었던가 우리집한
구석에 총, 한환 그밖에 명가들로 짜막 차운얼자마를 대로 놓
해서 우리집이 멍기고나 다를 않았다.

1921년 겨울 어느 날 아버지가 달구지를 준비하고 거기라 해자새끼두
말이, 광주리 몇개를 살는다 그리고 나를 달구지에 앉으라고 한다 나는
“무슨 영물이 저도록 올라왔나 어머니 아버지 브리고..” 어리로 갈
차여를 하오” 한다. 아버지가 아주 대견하게 “여기 좀 갖다 올려
있소”라고 대답한다 집을 떠났다 달구지가 달보다 아이래라 덕
기”라고 그러나 아버지가 어리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고 여러 시간 후에
우리 달구지가 소왕령(당시에 고려시집을 우수하게 아낄게 물었다)
에 들어섰다 나는 이사가 해들이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총내고 칼한 외눈
들이 쏘낸다 나아버지가 어찌 자고 뵈는 소굴로 오셨을까 총검이 낀다
이때 꼴짜 꼴까거리에 고려사람이 경영하는 자그만한 려관이
있었다 아버지가 어려관으로 들어가신다. 려관 주입이 그전부터
아버지를 학부스로 아는 모양이라 아주 만감에 끊어탄다 주인의
내 손을 잡고 천질히 대한다. 아버지가 어려관에서 사흘이고 아침
일주에 려관준이를 한다 ~~달구지~~ 날 불라는 둑이 달구지 뒤에 뒤지
하나, 술통위, 삿자리를 살고 복판에 나를 앉힌다 달구지가 러난다
서외로 나올 때까지 건드리는 놈이 없었라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이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라 친구들이 큰 수고를
했고 소화면서 아버지와 악수한다. 집을 여두 해서 뿌려운다 알고보니
달구지 놋에 총, 한환을 살았다. 사람들은 이 것은 점으로 날라드린라
외눈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아버지가 나를 놔두고 단연 그것을 보는 않았라
“이후 어려니가 나를 놔두고 란나지 말라고 아버지에게 빌리살이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들는 척하는 척한라 그 후에도 또 ~~는~~ 아버지 ~~는~~ ^{가나를} 놋에
수차 소왕령을 한데 맞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 혀령에
생명을 마친 사람의 아버지라는 이런 대단한 죽임한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1922년 6월 12일 카고 접작 힐라 마침이 소식 미아 버리타가 개미고 하늘이
 구름 한장 있는 맑은 날씨라 그 어느 때나 빠른 가지로 학생들이 수영시간을
 끝내고 떠들썩하고 운동장에서 노는데 난데없이 콩복듯 총소리가 오란
 하지 간다 운동장에서 놀던 아이들이 놀라서 개울 속에 깨작기 물을 맞추
 었다 한참 있으니 총소리가 그칠라 그래서 아이들이 솔 속에서 나오지 않았고
 운동장에 잡탕화라는 선생의 주령을 들고서야 학생들이 솔 속에서 나와
 운동장에 올렸다 알고보니 혼성간 문제가 지망행 굳어서 돌아와 중심여창
 에서 쉬고 있었던 이 일보를 같은 의문한 소문대가 마차에 황거우(크로뮴까)
 운호들을 앞싸우고 중심창에 달려들었다 의문이 드리한 고지를 찾이하고
 마을에 물질을 다 그려자 막총질이 시작됐다 의문 저격수 한놈이 중심여창에
 잘 나려다보이는 자리를 찾아하고 우리군인들을 쏘았라 이것을 발견한
 혼성간 저격수 한 사람의 포획(총어적을 막기 위해 돌로 둘러싼 초소를 살피)
 에 올라 의문 저격수의 아파를 따로 쏘았라 그러자 놈은 망아지도 미처
 못 탄기고 즉사했고 이것을 본 의문들은 검을 휘둘어 섹고 자기 군인에게도
 못 걸고 무상당한 흉악도 내리라고 대령이 했라 이날 끝두얼, 둘정우,
 길 핵선 세 사람의 사망하고 의문 저격수 죽었라

아군은 그 날로 남심여창으로 이동해온 중심여창 주민들도 도연들만
 남겨 두고 라 되실텐다

그 어늘 끝 의문 저격수가 중심창을 도의하고 장교 몇 명을 막을로
 들어왔다 그려자 로인들이 장교들을 맞이해온 데 끝에 물리치고 총, 칼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이던 의문 장교들은 로인들끼니 죽는 대로 죽여라
 가하지 않고 자기를 사체만 걸어 가지고 공손히 가버렸다 아마 의문들이
 이 땅에 와서 물을 물어들 모양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온다

이 사연이 있은 이후 중심창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살았라, 아니어지도
 이 후 최정률이라는 사람의 조작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라

2. 생활의 전면.

1922년 7월에 일본이 원동에서 철령했라 그려자 원동 전 지역이
 쓰레즈화 됐라 여기지가 이래 블루에 재회거두로 이사해온다

재회거두는 1880년경에 개천된 것으로 알고 일자 개척 초기기기 리공숙,
 리공원, 길 향목사 기화 사람들은 살았라 리공원이 이 출에 심은 어즈나수가
 자라서 사람들은 "리공원 앙현"이라고 끝난다 리공원은 나의 9

장 ^{여덟} ~~여덟~~ 일 다 원력 있고 의지가 강한 물이 열 다 나는 장인을 뜯 보았라
서 ~~수~~ ^수 오래 암라가 살가방이 열 다고 품종으로 자살 했라
본다

재파거우는 물남, 물북, 강나루초(강나루고목한대가 서 있다 고해에
란나루총이라 물건다)으로 나누어 저 있다 우리도 물남에서 살았라
이 훈이서 살 때 우리가 겪은 짓 가지를 말라겠다.

후풍사사에서 첫 쇠에르가 재파거우 이 설립 됐라 어머지가 첫 쇠에르
의 터원장으로 선출 됐라 그때 부회 어머지가 절문적드로 사회사업에
나섰라 출질서가 '마로 잠히기 시작했라 끼술군제도가 절차적드로 폐지
되고 투전과 협장드로 살아오던 건달들이 차차 없어졌다' 민동들이
쓰이에르를 지지 찬동 됐라 그러나 라 그런 것은 아니라 일주 무호통들은 쇠에르
를 은근히 미워 했라 선제도가 겸나서 일주 무호통들이 외국으로 도망쳤라

그 당시에 파종시기나 추수시기나 시 쇠에르나 시당에서 농촌으로 지도원을
파견하곤 했라 한편을 파종시기나 시당에서 우리총으로 날농전을 치도
원으로 보냈라 그들이 우리집이 와 있는 편에 ^{기운} 죽도사업을 했라 그런 데 어느
날 절심 때 밭에서 까을 사람 20여명이 농동이들고 우리집 마감에
들어 올라. 그중 한 사람이 "시에서 온 지도원을 끌내울으라 우리 그을은 빠리와
죽이겠라" 외친다. 어머지가 집에서 이 소리를 듣고 막으로 나와 사람들을 힘에
다가서며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하니 또 한 사람이 말하기로 "시에서
온 놈을 해외 죽이겠라고 한다" 그래서 어머지가 "당신들 소원이 정
그렇다면 나른 데 죽여 죽여시오, 그 사람은 사람에게 온 문이오. 너희를 모두
죽여 올 템"요.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대접할 사람니 있으면 눈에 나서
시오" 하니 대감이었다 한참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하나둘씩 흐느끼고
말았다. 이후 어머지가 이것이 누구의 작간인 줄 잘 알면서도 그저 내
여러 두었라. 이런 일이 라시는 없었다 온 까을 사람들이 쇠에르를 밟고
그려 맨들었라 또 일련 일이 있었라

~~재파거우 물남에서 많은 사건을 회상 하여 할라.~~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학교총(학교가 있다 해서 학교총이라고 물건다)
으로 놀려 간다는 것이 상승으로 돼자 거기가서 유희도 하고 어떤 때는
영화도 구경한다. 어느 날 저녁에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학교
총으로 왔다 그 날 저녁에 마침 학교에서 활동사진(그 시절에 영화를 한 통 사면
나라고 했라)을 돌렸다 저곳에 미화로 유헤하기 짝이 없는 흑색 누상

영화라 그것 바자 전기가 없어서 모하를 손으로 돌니면서 영화를 구경 했다 그래도 영화가 홀로 온라 하면 아이, 이를 덜 할 거 없이 영화 구경 하려온다. 그 날 저녁에 아이들이 영화를 끊지 구경하고 집으로 오는 차였다. 내가 집으로 가기 오는데 ~~날~~ 날 데 있는 흥소리 한방 날라 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깔이 오련 아이들을 데리고 수수 말고랑에 들어가 끓을 갑자 었다 한참 있노라니 뽕죽산(산봉이 뽕죽이 내실있) 라고 해서 뽕죽산이라고 물렀다 멀에서 인적기가 난다 그래서 나는 아파 들판에서 무슨 일이 생겼라고 짐작했고 얼마 후에 인적기가 떨어져 자고 사망이 조용하다 그래도 물라서 졸었고 가 조심스레 수수 말고랑에서 나와 집에 들어 왔다. 집에서 무슨 물망한 일이 생긴 것을 다라 하였다 조모, 어머니 두 누우가 낮이 흑색이 돼서 아무 놀랄이 쇠 있다 내가 아버지의 망물을 열고 드려라 모니 아버지가 안개신다, 조부도 망에 있었다. 강도들이 아버지와 조부를 뭇참아 간것을 알았다. 짐 앙은 스산하여 러 알할수 없는 우울과 미통속에 잠겼다 조모는 “저 놈들이 내 아들을 죽이겠구나” 하시면서 락루차신다. 어머니는 눈물에서 황홀한마리 보시고 있다 우리는 눈물채로 그 날 밤을 새였다

날이 밝자 동리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고 어머니와 조모를 하연하려온다. 이 날 밤에 강도들이 우리 조부와 ~~아버~~ 아버지, 쓰러지는 신기 깊어졌다, 깊어졌다 (고 이중영동) 딱 뻔씩 기다 20여 명은 물들이 았다.

그런데 아침 열시나 되서 아버지가 집에 오셨다 이것을 그 아침으로 기적이다. 조모와 어머니는 여덟 줄 몰라 그저 아버지를 봄고 깐 었다 동리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일이오”하고 아버지와 악수한다. 한 사람이 아버지 보고; 그들이 형님을 어떻게 그럴게 쉽게 돌아 주었소 주웠소 한다. 놀들이 나를 그럴게 쉽게 돌아줄 리 있소 내가 마저 나왔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놀들이 내 손을 결막하고 순간부터 내가 두 팔을 놀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결막한 두 손이 풀렸다 마로 ~~나~~ 나끌라이(서기)가 내 뒤에 왔다 그래서 내가 손을 풀으려고 앞의 헛다 그러나 나끌라이는 이 눈치를 못 알아차리고 유행을, 깨알리 것처럼 풀려도 빨리 주춤주춤 하시오한다. 나는 도망칠 기회를 엿 살다가 좌우에 흐루이 꾸성한 모술길을 지나 때 나를 지키고 있는 흥센 두 놀을 빨리 멀쳤다 그러자 두 놀이 쓰러진다 이 순간에 숲 속에 뛰어 들었라 놀들이 흥걸 ~~풀려나~~ 아까운이라 꾸사히 ~~한~~ ~~한~~ ~~한~~

캄캄한 밤에 나를 뜻 물잠을 줄 알고 새하를 떠루지 않았다 술속에 숨어
있다가 등이 흐자 짐에 웠다니라 하신다

노들이 물잠에 한 사람들을 차례로 둘로 했라 마지막으로 조무를
운초했다 조무가 이 노들이 내 아들을 물잠하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내가~~
^{"우한이거든 라면"} 내가 쓰레트의 원장의 무친이라 이 사람들은 속에 내 아들이
없거" 하셨다. 운초하던 둘이 조무 보고 '밤에 뛸 사람이 장신
아들이 아닐가' 하고 술으니 조무가 그럴가고 대답하였다 그려니까
운초하던 둘이 .. 저런 고약한 사람 보았나 아버지를 두고 뛰라니"
하면서 출출했다

일이 아닐끼 되자 조무를 불로 날려 두고 다른 사람들은 차출한라
이 사건 이후 몇을 만에 밤중에 뾰족한 산봉에서 충소리 한방 날리
이것이 무슨 신호인 줄 알고 아침에 산봉에 올라가 보니 아니니. 다른가
쪽지종이가 들어있는 10명이 돈우에 놓여 있었라. 쪽지의 내용은
아셀라, 총 몇자루, 단발 몇개, 돈얼마를 아낄 날 10명이 출연한
자리에 갖다놓으라 만약 미로구를 거두한라면 장신무친의 생령이
이해하라는 것을 알라" ~~근데 무친이~~ 는 것이다

이 형식적 쪽지의 내용이 알려지자 들판 둘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리 손을 쓰라고 조른다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요구를 들여
줄 수 있었던라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차례 청고를 들는 척 아니 척
하고 꾹 참고 있었던라 한 달 만에 조무가 짐에 돌아오셨다.

우리는 그 시기에 여름이면 짐에 쫓자고 자리를 가지고 나와 수수 말
고 랑에서 자른 했라 춤고, 매고르고 속첨련 떠린 사절을 지금
더들여 보니 어제 말라.

우리가 이 춤으로 이사해온 아들는데 여름에 날심여왕에서 미주이
있었다 이 미주을 아는 사람들은 꺽고 그때 이 사실을 어느 한 출판
물도 실지 않았다 여덟이 물어보았던라

그 모년이나 지난 보들이 차서 그런 역사론 끝될 필요가 있었겠
는가 하니 서야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사실을 끕과
~~할 수 있는~~ 한라는 것은 아주 유쾌하다 그런 의미에서 날심한
미주을 좀 차세히 말하겠라

1922년에 고려 말찌산들이 무가를 말하고 평화적 운동이

착수했고 라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일부 무례들은 무장한 채로 중국으로
가버렸고 이 때 한 노무래가 무장을 말이지 않고 남침여왕이
군자리를 두고 먹고 살기로 해야 하겠으니까 혼으로 돌아간다면 차원이
썩은 것은 사실이라 그러나 사람을 죽여거나 주하하는 일은 없었다

이 보드를 말든 물든 문제 본부가 기영 몇 명을 남심여창으로 보냈라
그 때 남심여창에 허승한 문제에서 복수하던 청년 30명이 있었라
기영들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한 줄로 헛쳐 놓고 마치 칼련을
하듯이 깜그리 목을 잘라버렸라 아마 기영들이 이곳으로 올때 목을
라 잘라버리라는 본부의 명령을 알고 와서 이런 쯤짜스러운 일을
해지길 알았라 그러나 저러나 이건은 만행이라 달라는 말할 수 없라

그 뒤에 재판거의 공정원들이 남심여행이 가서 칼에 죽을 잘린 행년
을 들을 때마다 그를 봐나는 그들끼리 여미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 데 그는 드레식에 참가한 사람들을 라사방이라 봤다. 나는 그 뒤
소년관원이 열고 그때까지 드레식에 죽을 참가했라

나는, 그리고 허승한을 남심여창으로 하면 좋다면 이런 기록을 회
할 수 있었느라고 물다. 그 당시에 이런 풍설도 있었던가. 즉, 남심여창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먼저 충절을 라니, 이명들이 격문에서 그들의
뜻을 이해한 것이라고 말을 펼쳤다. 이것은 혹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천가하기 위하여 주연별 말 ~~여기 남자 축한과~~를 걸었단다.

우리는 물방에서 일곱 살 때가 3간 호가점에서 빼놓지 살았다 가는 이 점을 퍼고는 엎다 그때 아버지가 쓰레기 더웠던 들판으로 올라면서 19 투블리를 말았자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때서 아버지가 간나누촌(그속 강나누한대가 서있고 해서 흔히 말들이 간나누촌이라고 끌렀다)으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간나누촌에서 여는 사로 했다. 선예는 일을 하면서 짐을 이여는 사를 해 물사과를 했다. 그런데 이촌에 마침 8간 인접한 해가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이점을 듣고 사람을 살피고 “이점이 왜 미여 옆소”라고 물으니 그 사람의 대답이 “아파온다는 모양입니다. 이점에서 살던 세두 사람의 점을 빼버리고 갔습니다”라며 점에서 밟아면 꾸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절로 개떼한 달이라”라고 대답한다. 아버지가 듣고 사람들을 보고 “내가 이점으로 이사하는데 강남들이 말해 냅소”라니까 듣고 사람들을 빼버리고 점을 강남이 할 허시오.

그러나 공연한 생각을 하지마시오 이 짐이 허가서와도 뜻 사오한라
 아니지는 둘리 사람들의 말을 뜻을 철학자 짐수리가 책수행과 짐을
 세운지 오래지 않아서 1열로 수리할지도 없었라 이 짐으로 이사하였다 결림
 사람들이 청설수설하다가 한 사람의 아버지 봄고, 이 짐에 의해 살기
 무심지 않소 한라 그래서 아버지가.. 무심기는 무엇이 무심라 말일로
 나는 미신을 믿지 않소. 걸어갈드 보면 자신이 찾는 뜰이 옳아설라.

여짐기 와서 거이 두근이나 살아도 사람의 곡소리도 뜻들고 나이순들이
 제작로 멀리거나 달리는 일이 없었다 아버지가 공사를 해서 살길살이
 좋려이었다. 나도 아흔에서 7년째를 준양하고 1927년이 무복티스코서
 고려사업학교에 입학했다 나의 학업이 꾸태서는 않으로 박학았라

1928년초에 사업장 필요에 의해 꽂싸꼼까(고려사업들이 이출을
 험지하고 했라)로 이사로였라 꽂싸꼼까는 추풀사사 이출을 손
 꼽히는 거이 300호나 되는 큰 출이라 현대적 출라이라 안중등학교,
 우체국, 상점, 제물소, 음식점, 교회당 나중에 출청년들이 교회당을
 재건하고 주막무를 만들었라

이 출이 꽂싸꼼까, 크로우등까 재되었수가 통합해서 해평양
 조합은 설립되었라 이조합에서 ^{나짜지}여러가지 책임사업을 했라.

1929년은 출청년이라 가을이 짙었던 때였다. 말하마리고 씨도 뜻
 거두었라. 그 당시에 해평양조합은 광미어로 차 1열수가 책임자로
 있었라 가을때문에 조합원들이 죽는것을 보고 차 영수가 조합원
 들을 먹여 살리길라고 깊은것이 알각하자 겁나서 중국으로 도망쳤라.
 그때 책임자들이 아주 겁을하고 양심적으로 일했라 대여지가
 조합에서 책임적 사업을 했을지도 궁금하고 점에는 먹을걸이
 없었라. 하루에 적어 두끼를 먹고 살았라

꽝싸꼼까에 이로연회고 쇠메트 개의원 리예브로피야가 살고
 있었라 그때 이녀사가 고려사업들중에서 유일한 대의원이었라
 무식하거나 조합에서 물조작으로 일하면서 조합원들의 칭찬을 말한라
 이녀사가 이출 쓰메트의 원장으로 활약 할때였라 가을이
 서 쇠메트에서 지도원한사람을 몇명자 어리도면이 놀란사람들
 나갔다가 2층에 올라가고 무식한을 풀고 다닌걸이 리예브로피야
 에게 보고하자 예브로피야 그지도원을 그 이틀날로 쫓아버렸라
 그리고 이 사실을 사람에게 물고 하면서 그지도원을 강에서 쫓아냈다

제의했던 대사장에서 할 수 없이 그를 출장했다 그 당시에 시어서 측수
이었고 대사가 있으니면 리예브도끼이스를 기념행사에 초청되었다 그때
대디원터 자신이 따로 꽁끼를 냈다

이상에서 말하니 아와 같이 나는 1934년 가을에 우쓰미쓰코시 고려
사업학교에 입학했다. 오창환의 집에 와있으면서 공부를 했고
고려사, 일본학교가 3년제라 3학년에서 공부하다가 두 등찬생과
공통하고 집에서 돈을 출처 가지고 모스크바 공부를 떠났다 그 당시에
모스크바로 공부하려 가는 것이 특령이었다 막상까 (하동로열하) 이
않아 두 주일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도착했고 당시에 모스크바에
고려주학부가 있었고 이 고려주학부 밖에 학생 모임이 있었는데
이 학생 모임은 학생들끼리 일학조개사를 해 주었고
우리는 늦게 오길래 모스크바에는 자리가 없고 우크라이나 수도 하리코프
를 갈아고 한자 그赖以 나는 자리였으므로 왔다 여기에도 초보학자로
자리에 고려주학부가 있다 여기서 나를 나풀라예브시로 하면 한자
이 시까지 오고나니 돈이 한푼도 없고 끓는 단이라 하늘수없이
나풀라예브시 공립 대학으로 찾아 왔다 공립에서를 만났다 그가
나하고 여동증이 엎드려 하던 눈을 봐 (그때 공립대에 학자증으로
가자고 하면 여동증이 있어야 했지) 여동증이 엎드려 하던 공립원이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나를 책망한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숨는
데 하니 공립에서가 잘하는 생각 하다가 소개자를 써 주면서 나를
“여성연로은학원”으로 가라고 한다 그래서 학원으로 왔다 학원원장이
나를 친절히 대접하고 학원아이들도 나를 가쁘게 맞이한다 이 학원은
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다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다 자그만한 공장이나
철공실, 목조실, 작품실, 기화기 있다 나는 철공실에 배치되어 일하다가
9월에 조동학원이 엄격해졌다 1930년에 학원을 존엄해졌다 이
조동학원은 나풀라예브 조선(造船) 대학 산하에 있다 그래서
조동학원은 존엄한 학생들은 주식원으로 대학에 있는
나는 대학에 엄격해졌다 대학 조작년을 존엄해졌다 끝나니
땅이나 사장기 축복을 맞고 집에 왔다 건강이 회복 됐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공부하려 끝 많다 여기서 대학 끝이
같이고 말았다

지금과 생각해보면 당시 공무하려면 간접이 여행이다 왜냐하면 나의 동창생들은 깊숙이 깊어지며, 깊어지면서 가족 면에서 공무하려가 걸려 왔다 어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조련된 각종 도시들에서 공무하려면 고려 학생들이 모조리 해동으로 나가 폐의 할 수 있다

1933년 가을이라 그 당시에 가을이면 조합원들이 모두 집으로 산림속에 가서 채집해 애벌레를 하루는 아버지나 보고,, 너는 아직 젊으니까 군부는 차차하고, 식솔들을 낚여 살리라 이전에 목재소로 가게 되면 언제 올라 알수 있다" 하시고 목재소로 가셨다 봄이면 목재소에 갖린 조합원들이 다 돌아오는데 아버지 만연 돌아오길라 그래서 여러나 코끼 걱정하라가 당의사를 찾아가서,, 우리 주인이 때 지금까지 안 돌아오시오"하고 쑥쓰니 자기는 잘 모르겠라고 대답한다. 여러나가 목재소에 직접 가서 알아보겠라고 뛰어난 차마를하는데 뚱뚱이 우수리서 차나드보르스크거리 32번에서 사는 꼴꼬모라는 러시아 사람이 여러나에게 돈 150루블리를 보냈다는 말을 알고 여러나와 내가 ~~여기~~ 아마 아버지가 어의 가서 일하시는 걸어 라고 짚적했다 여러나 좀 안심해라 나는 할 수 있어 맨중등학교에서 교도원을 참고 있다

1934년 가을 어느 날 밤에 아버지 집에 오셨다 아들은 찾으로 뚱뚱이와 우리의 아랫은 한이 엎었라 여러나가 아버지를 보고 우선은 한해 동안에 아버지의 면모가 묻어 1년했라 러리가 하여 막말이 되고 나마에 같은 주름이 잡히고 한없이 흐리었라 나는 그때 아버지를 마라보면서 - 무슨 일을 하시기에 한해동안에 저렇게로 끝냈을까"하고 마음이 안하까웠다. 이마들에 아버지와 같이 영하던 동지들이 쌓건 막으로 앉나가서 집에 앉다가 ~~사~~를 땀에 걸을 떠나 ^날~~날~~ ~~나~~보고,, 우수리스코시에서 멀지 않은 라리츠 출에서 회축동, 라흐겔기가 살라 그들은 나의 전우들이니라 거기에서 그들을 알고 살아라"라신다. 그때 나, 여러나 농민처럼 러리가 우수리스코시까지 아버지를 아래밀라 아버지 우리 보고 사진을 찍자고 하신다,, 이것이 마지막 길이라 하라" 우리에게 알지 않는 것 같라 그때 찍은 사진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아들은 아주 짜증한 사진이라 그때는 아버지가 그리우면 내 사진을 내놓고 볼라. 찰랄 아버지 라시안 돌아오셨다

1935년 초에 아버지의 말을 대로 내가 라리츠로 미사트보니라 그때 아버지의 천주 라흐겔기가 학교 교장으로 있었라, 있고,

최후송이 강미씨로 있었다

하리츠 출신 역사관 간단히 말하자면

리치즈는 막호를 넣는 쪽 로시아 혼이라 이혼에 초기 점이 있고 양질집봉집 들이 있다 대개 무호동들이 살고 있었던 것과 그러던 것이 “호호를 계급으로 보아 형산한다”는 구호가 나와나온 이후에서 살던 무호동들을 깡그리 형산하고 고려사람들끼리 혼은 ^{부정}하지 않는다. 고려 사람들의 이혼이 오자 “극성(極星) 조향을 조직했다 그때 “극성” 조향이 1년간에서 2년을 두 텔철과 의사해운 첫 해에 출주연에 있는 하여지를 개간하고 1여는사를 시작했고 농사가 잘 되었고 1여는사에서 농수확은 빛과 꼭불 배수(국가에 빠지는 르현줄세)에서 어느 때나 철자리를 찾여 했고 구역출판지인 “극성글로즈가” 자조 실력을 고려 사람들처럼 무조전한 민족은 드물었다.

라스리흐 러시아 사람들은 이것을은 군히 저의 빛나 때로는 우물에
두 속을 넣는 일도 일어난다. 이런 미친한 일도 있었지 아마 대로는
가을에 빛을 일어나기 기억된다. “극성 플로즈” 농장이 불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주로 광청원들이 많이 농장을 지어온 것이다.
그때가 광청원으로 남았다. 하루는 어떤 파마한 가지로 간 용근, 막령의
두 광청원을 헤수를 차리고 농장을 내 놓았지 말에 어떤 늪들이
두 광청원이 있는 헤수 밖에 물은 빙빙 둘러 헤수 밖이 전소되자 두 광청원이
헤수 밖 속에서 죽어버렸지 그때 엄청 기관들이 이 ~~없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무척 화를 쳐들으나 아무 결과도 못 거두고 말았다.

강제 이주

1937년 9월 여타 텁동에 치 살련 고려사람들을 중앙아세아로
여러 시전과는 말이 떠운 다른 나누는 노문을 들고 해운에도 멀지 않았다고
오짜걸수가 없라고 했지. 하루는 구역에서 사복한 두 사람의 와서 광
마시와 조향의 원장을 찾는다 이 사람들은 왔라 가자 먼저 꼴호로 원
총회가 소집 됐지 총회에서 광마시기 긴 말 없이 텁동에서 살련
고려사람들을 중앙아세아로 아주 나쁜 다른 삼무의 지식이 있소.
우리 꼴호는 9월 30일에 떠나게 됐지. 떠는 떡을 망석과 여부자리
간단 조지풀을 가지식으”, 한라 이것은 괴연청현 1역역이라, 여기에
오래 백여 살련 사람들은 짐, 가축, 허전, 가잔 짐둘, 아직 걸지 않은
채소 기름에 살집에 털묘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 이것을 할 시간도

없거니와 사는 사람도 멀었고 이촌에서 사는 러시아 사람들은 거 고려 사람들은 각 러시아의 땅을 절여 놓기 차례 자리라고 생각하고 좋아 그랬고 하간 국가에서 헐값으로 김, 가축 알곡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격분하고 신속이나처럼 암에 있는 가구, 꽃, 물건들을 둑겨들고 모조라 깨우쳤고 대신, 꽃, 노리 갈은 것은 몽땅 라잡아가지고 려갔다.

9월 성일에 구역에서 사북한 몇 사람과 내수원 몇 사람이 와서 멀리 떠나온 차마를 하하하고 웃고 빙자 사람들은 도보하고 아이들은 늑장을 알는 사람들은 화물 자동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나갔고 저녁 아홉 시나 돼서 한대 목축을 수송하던 화물차를 뛰어들여 댄다 말라 차에 오르라고 내수원들이 명령한다 바이든 물을 소리, 아이들을 찾는 어嗟(哀) 소리, 알는 사람들의 산을 소리 이것을 함께 단을 韶山이란다 그때 이 장면을 화여명(化夷名)이라면 이역화를 보고 물사람도 있어줄 것이다 저녁 11시나 돼서 기차에 타 올랐다 한 차량에 8박구가 한 차량 안에서 가축 몇 대가 풀기고 차량 복판에 난로가 있을 뿐 다른 시설은 없다 그때 우리에 끼식을 누는 가지는 때가 되었다. 아이를 이물 할아 놓고 물을 엎고 우파란 모렬차에 거이 4000명이 몰렸다 그 중에는 알는 사람들은 멀었고 그러나 미생차량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원도 멀었고 아로우리가 한 화물 열차에 목축을 수송할 때에는 수의가 꼭 따라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정전 강국이 아주 철들을 소나 태지만 물리게 취급한 점이라 차마

그런데 원일인 라면 러나지 않고 서둘러 가라운는 아침 열한 시나 돼서 천천히 려온다 기적 소리가 들린다 어기적 소리는 마치 강제로 일려가는 사람들이 물문을 흘리는 것 같다 차량 끝에 이서 “천둥이여 잘 있거라 술이 많라 뜨는 물이 떨리라”고 하면서 수건을 내흔드는 사람도 멀었고 로시아 사람들은 성함 해서 그러는지 미워서 그러는지 알 수 있으나 솔은 내흔드는 사람도 있고 말을 내흔드는 인간 끄트기도 있었라

우리 열차가 연기를 흘리면서 힘차게 갈린다 그럴 데 원일인자 강미시 회주, 꼴호즈 뒤엔 강 김복현의 보이지 않는 차가 려날 직전에 그들을 빼포로 뱉으라고 한 그들이 영수원에 라고 말 많라 그때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겼다 나의 어머니가 여기에 거쳤다 보면 어려운들의 운명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려운들과 같이 사망했다. “극심 꼴호즈”가 고아로 된 절이라 그래도 무서워서 시끼를 캐는 사람도 멀었고 ~~우리 열차가 드는 암동이 가고 5시 꼴호즈 차운라는 말이라가 죄다~~

우리 열차가 갈 때가 어느 때나 시내에 세운 그걸은 시가 어려워
자고 영문은 알지 못이라고 한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라 우리 열차가 씨미리야의 열판을 갈 때
다가 어느 한 소도시의 경계 간과 세운라 우리 열차를 볼고 이내의
시민들이 화하고 쓸어 나온라. 우리 열차가 같은 도시들을 통과해도
우리를 환영하는 열이 없었는데 이 시민들은 우리를 환영하는
구나 하고 덕 기여했다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새집을 이나하지 되려고 집승을 구경하려
보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 사람들의 키가 작고 피부가 검고, 코가
진승이 코처럼 생기고 이마 아털이 있는데 흥한 괴물로 알고 구경하려
나온라 무서워서인지 우리 열차로 만나보고 전방에서 저리 저리
뛰어나고 쑥준거리면서 웃고 손가락질한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놀라기 위해서.. 당신들이 우리를 구경하려 왔소.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고, 아마 고려 사람들은 처음 본 모양이오.
우리 서로 연극을 악행시다하고 손을 내리니 그중 한 사람이 나와서
악수하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사고려 사람이며 뛰는 사람이라는
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라 군중이 손을 내흔들고 이 광경을 살피던
내무원들이 군중을 쫓아 떠밀고 어떤 일이 한 특별이 아니었라
우리는 씨미리야 사람들의 문화정도가 낮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잘못은 없라 상부에 앉은 사람들의 말로는 민족정책이
라 해 결된 듯이 빌라지만 사실은 말공무 ~~뿐이~~ 우리 열차가
가다가 시내에 어느 때나 세운 그걸은 시가 러러되자고 전열령 특행을
예상함이라고 한다

10월 말에 우리 열차가 라스베그 시주역에 와 랐을라 차량에서
말을 세우거나 말이 막자 차창으로 막을 내리거나 내무원들이 막아 간라
한다. 열두 시나 되어 내무원들이 출입구를 열고 차량에서 다를 내리
라고 명령한다 ~~한~~ ~~내~~ ~~무~~ ~~원~~의 손에 종이장을 든 한 내무원이 즉성
조합 원들을 한 장소에 모여라고 소리친다 그러자 거의 300여명(아이들
함께)이나 되는 조합원들이 점참해섰다. 한참인 뒤가 우리를 ~~날~~
외출로 서서 내무원들의 뒤를 따라 뜰로 나왔다 절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스무 명식 차에 하라고 내무원이 명령한 뒤 절차를 두고 우리를
때운 절차들이 데운다 여러로 실어가는가 해서 속이 무서워라

집자들이 한참 잘나다가 우리를 갈말속에 갖다 놔놓는다 떠느 때
우즈베크들이 살다가 내버린 거예요 너꺼가는 흙집 옛해 뿐이라 라는
건물을 염라 모기고리와 어리고리를 이옥실 맨라 사방을 살펴보니 마을 하나
없다 미개척지라

사람들이 뚝뚝히 서 있다. “이 갈말 속에서 아이들을 놔두고, 어떻게 살단
말인가!”하고 저마다 무심하는 모양이라 그러나 학심하는 사람은 하나
도 없다 끄려 사람의 생활력은 어느 민족이 어떤 마일이 간하다 떠가로
오자 끌장 조합총회를 열고 당시 역할장을 선출했다는 랑에서는 강
의서를 ~~선제~~ 했다 일어 시작했다 아이들이 말안 예뻐나를 과로인들을 현재
있는 집들에 들기 했다. 다른 사람들은 천박기식 살기 했라. 한데 갈로
우르자를 세우기 시작했다 한 주일 지나자 갈말 속에 수십 개 우르자 가
나타났다. 풀로즈 전원이 총동원하여 흙집을 짓기 시작했다 썩 끌어
지나자 거리 좌우에 많은 흙집들이 세워졌다. 이제는 완전한 마을이나
학교, 학교소 건설이 시작됐다. 거리집 마라 우울은 팔라. 우즈베크들은
우울을 안 먹고 흐르는 놀반 먹기 때문에 여기에 우울이 하나도 없었던
제일 큰 문제는 세해동사를 끌어내고 주변에는 갈말을 끌이고 떠가
말도 없었라 그래서 갈말을 일구고 떠를 살피야 했라 이듬해 봄에
여자는 살았던 체녀지라 여가 잘됐다 가을에 우즈베크스탄에서 전파온을
여수학교를 걸되었라 썩 양 때문에 군집할 필요가 없었던 국가에서
삼년동안 국가연출사를 세계화 했라 조합원들의 생활이 안착되기
시작했다. 거리집 마라 자질 거를 가지고 있었라.

세해가 지나자 주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학교, 학교소, 주부부가
열렸라. 주성 풀로즈의 소문이 그리스케인트 주에서 짜짜쳤라.

1938년 삼월이라 살아보겠라고 맘 낫 일하던 우수한 조합원
300명을 ‘말중에 봄 잡아 갈라 마을은 대중적 걸거라 그때는 대중적
걸거라는 말은 끌어내고 말 했던 라간 물질 혜가는 단되었라.

나도 3.1절 날 체포됐다 1년에 차는 데 푸른 모자 쓴 (그때 내무부령)⁽¹⁾
의원들이 떨끼울리슴) 세 사람의 차를 타고 와서 내 10명이 뛰어든다.
나짜고짜로 나보고 의복을 입으라 한다 어느 렇렁이하고 안 복종하기
는가 의복을 입었나 말도 없이 손짓으로 막으로 나가라는 거이니
막에 나왔라 한 사람의 바지 수감을 해두고 차에 차고 차고 물
쇠풀이 떠넘개나 되는 그리스케인트 콧 갈목으로 나를 살여 왔라

머리를 깎고 목욕 시킨다 그리고 의복에서 간추를 다듬어 면과 차들이 갈망에 넣는다. 갈망에 들여서 나 거이 60이 된 죄수한 사람이나보고, 젊은이는 무슨죄가 있어서 갈옥에 들어 왔소"하고 물든다. 그래서 내가 "나는 아직 제 죄를 흐름나라"라고 대답했단다 너 철이 50년경이 있던 갈망에 지금은 200년경이 있다. 새총대를 매고 죄수들은 단이 대끼처럼 끌어 넣었단다 한 죄수가 40년을 지나면서 "여기 이 땅에 오자마자" 한다. 옥실의 공기가 무겁다 한 구석에 통통이 높여 있다. 거기에서 악취가 옥실을 풍긴다 취들이라 견례내기 했던 일과 그러나 뜻을 지나가니 속관이 된다. 내가 이런 옥실에 160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은 내하고 놀아먹고 다른 사람들은 딸들이라 죄수처럼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들이고 큰 열화련 사람들은 니다. 진짜 간첩들이 여기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악마를 간첩이라고 원통한 일이다"하고 죄수들이 물방울 깨닫단다

나의 갑옥 생활이 시작된다 말중에 나오라고 나를 부른다. 한 간수가 나를 데리고 한 호실로 왔다 그 호실에 살이라 (여률이 기억 안 될라)는 사람의 책상 끝에 앉아 있다. 이 사람의 주역 비속무기가 열하고 열라는 걸은 나를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나를 보를 수 있다. 앉으라는 말이 많다. 무슨 문서침을 깨끗한에서 짚어내 상위에 놓는다. 거기 앉아자 하고 나보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아주 절망하게 "갑옥안에서는 한발 밟아 놓으오" 하니까. 살이라는 작자가 1만리 일어 서면서 "내가 여기가 어떤지 아느냐?" 한다. 그래서 나도 만족로. "모르기는 왜 몰라 갑옥이라" 하니 그 작자가 너를 결나치 데 뛴다. 그러다가 나보고 "그리 말고 내 물을 말에 대암해라" 한다. 소연대로 해라 나는 너와 말을 생각이 있다"하고 입을 다물었다. 살이 "여러 드로 모자"하고 문서침을 깨끗이 넣고 떠나는 데를 본다 간수가 들어 왔다. "이히연을 갈망으로 데려 가라" 한다.

그 이후 날 나의 십사원 중의 미로스나ienia가 말에 나를 부른다. ('암에 죄수들을 부른다) 십사원이 나보고 "강신이 어찌 왜 살이 물을 말이 안 대암했습니까" 한다 (나는 이것을 아주 짙작해졌다) 내가 "그런 교양 있는 사람과 말하고 살지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미일한도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십사원이 "무슨 미일았습니까"하고 물는다 그래서 내가 "여러나마 끌고끄라는 사람의 나의 어려운 어깨 매달은 150루브리를 보냄나라 더 이상 봄날 걸이

없습니까" 하시자 실사원이 "알면 알이라 봐를 이 아름답다 보겠습니까 그동안 감망에 가셨으시오" 한다.

감망 생활을 좀 더 알리겠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할때 공기가 모조리 차 자리본을 가지고 차례로 감망공기를 뽑아낸다. 감옥 내에서 쓰는 운이가 있다. 점심(로마야 말 오메드)을 말라드하고 차고 죄인들은 살고 있는 차를 걸라고 해서 까마귀라고 부른다 내가 이런 옥실이 정신이 놓힐 자주 사람이 있었던가 그중 한 사람은 멍하니 앉아 앉아 가도 자기식탁에 물을 달라 그래도 뜨거운 물을 듣는다. 절이 사람이 있는데 물에 화죽은 수도 앉아 차를 한 사람을 앉아서 그저 웃기 때문이다가 한 곳만 미라를 띠지 않았다. 옥실에서 장기도 잘 듣는다. 죄인들 중에 노인을 주술러서 장기씨를 훌륭히 만드는 사람이 있다. 장기 판은 솔수건에 끌인다 그려다가도 땅질로 떨어지면 몽랑하고 깨어진다 절로 나거나 다른 장기씨를 만들다 나는 장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려 실상^{정정}하게 시간을 보낸다

내가 이런 옥실에는 일인은 있고 정치인들이 앉아 그들이 서로 대화거나 때리는 것은 나를 못 보았다 서로 돋고 도연하고 화족하게 앉다. 점에서 사식이 들어 와도 혼자 먹는 법이 있어 젖을 먹어도 서로 나누어 먹는다 죄수들이 절방과 서로 연락 차운다 역에 고무를 벌어내리고 신을 한다. 간식 후에도 한다 우리 옥실에서 한 사람이 조아와 뜻을 달라고 뜻을 굽자 군검사가 들어와 그의 말은 라들고 나서 그의 요구에 응한 일도 있다

나의 실사원 데르비스 칠꼬가 두 주일이면 해聘해졌다. 그걸이 두 달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 끝을 안 나는 찰밥 유통상업원과 서파 마리아 일을 하시다가 무슨 오류로 1월 ~~한국~~^{한국} ~~한국~~^{한국} 5.1절을 감옥에서 끊어 했고 큰 병원에 한때 잘 먹이겠는가 해서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 그 반대로 병원, 말라드가 끝 해졌다 그걸로 감연하라 죄인들끼리 무슨 병원인가 바로 5월 1일 말에 끝난다를 이루었는데 그 끝이 아주 이상하다 따스한 감옥 담이 갈라진다. 메라(나의 치)가 나를 찾아왔다 이제는 그만 떨었으니 점으로 가지고 내 손을 잡아 앉는다 깨고 보니 끝이다 나는 끝을 벗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끝이 하도 이상해서 혼자 생각했다 5월 8일 암세시에 "걸을 가지고 나오라고 나를 부른다 죄인들끼리 무슨 절이 있겠는가 그때 빛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다. 이 호흡이 나에게 되면 죄수들이 러울 땅한라 너 사람을 라를 옥실로 이동한라느니, 강제 수용소로 가게 간다느니"

지어는 총살한 라는 징수도 있라고 그러나 한 사람도 죽이면 한 라는 말은 안된다
내가 갑옥 앞에 나서니.. 까지가 "멀리 나를 기리려고 일자 나의 집사원
비로스나 핸꼬가 나를 안내한 라 차가 몇 분간 멀리 데려다놓고 미숙한 길라한
단층 건물 앞에 와선라 집사원이 나를 데리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온라.
건물 안쪽의 실이 의복 수천 벌이 걸려 있다 이것이 라죽은 사람들의
의복이라고 생각하니 물이 나득해 전라 집사원이 나보고 -여기서
황실이 마음에 드는 의복을 골라 입으시오 지금 입은 의복을 하의로
가질서요 -한라 나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의복을 골라 입을 가운데 멀리
그래서 아득진이나 악하는 데로 짐에 엄밀라 그엔 데려 집사원이 나보고
-왜 좋은 것을 골라 입지 못하고 그런 것을 입었소요 -한라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했라. 집사원이 이 건물에서 나와 나를 데리고 어와 미숙한 건물로
들어간라 이 건물 안에 길라한 상이 있는데 그 상은 이 자본들로 호수현
개의 광청증이 놓여 있다 나는 이수 많을 광청증을 보고 이것이다 총살당
했거나 갑옥에서 살을하는 광청원들의 맹증이 주하고 생각해보니
기가 막힌다. 나는 그때 광청원이라 쉽게 맹증을 찾았다. 이 건물에서
나왔다 건물 앞에 까마귀는 없고 승용차 한 대가 서있라 집사원이
나를 차에 태운라 모른도 못 돼서 우리가 한승용차가 광화국 내부인
의원부 건물 앞에 와선라 집사원이 나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라.
국장실이다 한참 있다가 국장이 나를 들어 오라 한다. 국장이 일어서서
나와 악수하고 나를 앉드라 한라 국장이 나하고 하는 말이 -황실이
갑옥에 와 있는 것을 노여워하시오"하고 매탄을 떨더니 문서천을
쓰여 전라 그 속에서 ~~집~~ ^집 한장을 내 앞에 내 둥으면서 읽어 보라고
한다. 나는 그 조이에 쓴 글을 다 읽은 생각이 있었던라 그저 누구의 수를
인가를 본 뿐이었다. 내가 - 알만 달라 "하고 그 종이 같은 국장에게
도로 주었다. 국장하는 말이 "황실 무친이 쓰이미즈 주장을 통해 일을
했습니라." 일을 하루 일과고 안 하루 열흘 헌습니라 하니 나는 아버지의
을 면은 알 수 있었던라. 국장에게 아버지에 관한 말은 물어보기 싫었으나
그만 두었다. 국장이 나보고 -황실이 짐에 가서 이 사람들과 물건을
맡태서는 안될 달라 그것을 깡생끼 물리쳤는지 "그만라. 나는
- 예 알았습니라"하고 국장 앞에서 나왔다. 베로스나 핸꼬가 기리리고
있라. 그가 나를 데리고 벌노 높이 둘려 막은 안으로 들어온라 ^{둘레} ^{둘레}
서니 단층 ^역을 짐하나가 있다. 그 안으로 들어가니 준인 ~~집~~ ^집 ^집 ^집 ^집

페로스니체인꼬가 - 이문을 잘 대접하시오 "라고 묻으니 령령한다
 군인이 - 예, 알았습니다" 하며 기학한자 십사원이나 보고 그려면 삭사를
 하십시오, 한시간 후에 또 오겠습니다"라고 나간다. 십사원이 아침식사를
 가져왔다 배고프던 길에 잘 먹었다 십사원이 들어왔다 - 삭사를 하셨는지라
 하고 나왔는지 내가 - 예, 많이 먹었습니다" 했라 십사원이나 보고 이제
 열두시가 되면 강신부인이 강신래리로 옵니다 그러다가 길을 찾았을 때
 강신부인을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나와 통합한다

"이십사원은 소악하고 침착하고 깨끗 있는 사람이라" 이십사원도 사실은
 푸른 모자를 쓴 사람이다 그 당시에 푸른 모자를 쓴 사람들은 어떤가나 사람들은
 웃되게 줄었는지 아이들이 물리가도 푸른 모자를 하면 물을 흔들라고
 한다

열두시에 정말 메리가 왔라 십사원이 나의 히를 묻고 - 똑똑히 보시오
 저 문이 강신군연이 옮소"하면서 통합한다 나는 나의 십사원을 일상하고
 메리를 놀리고 여기에 나왔다. 십사원이 많거나 화석우리를 전송한다.

꼭 이루크로 나왔다 거기서 걸어오는데, 주신 꼬흐즈"운전수들이 우리 보고 차를
 차하고 한다 그러나 나는 들지 않고 두리서 걸어 왔라 길에 들어서 어려워
 기자하고 있었던 나를 토등하고 무신다. 그래서 내가 어려워 보고, 무신기는 왜
 우심니까, 내가 줄여 왔는데"하고 어려워 데안했라 내가 놀여 왔라는
 말을 듣고 동쪽들이 찾아 왔라 늦게까지 동쪽들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
 었다

어려워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 네가 간추어 우리 집에서 전총파
 만동 메리가 나하고 놀라운 소문을 어렵던 사람이 펼쳤다. 내가 출장 강
 했느라 임차복 강했라"하신다. 그래서 제가 라 알고 있습니다" 했라.

이것은 다른 끝제가 아니라 물집과 간식술이라고 해서 육체원에서
 일하던 나의 히를 면통장으로 보냈다 아이가 어려워 젖을 뜯어서
 그렇게 식화된 아이가 되며 안간았다 때가 늦었다 죽어죽었다. 두 살
 난 뒤로도 잘 거두지 못해 죽었다. 두 살 동안 이를 어진 것은 아实业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 메리와 그런 이들의 친구가 살아남다
 하길 이런 어려움을 내식술 만족을 것이 아니다 이사후 한해 동안 유틸로함
 에서 거의 백여 명 아이들이 죽었다. 그럴 땐에 있다 아이들이 유틸로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10종에 걸쳐 죽었다. 이것의 이사후 제일 큰 어려움
 이라 그러나 정진강국을 아랑곳 안한다 어느 한 꼬흐즈에서 왜지 썩끼

몇 마리 죽게 되면 끌흐즈 책 임자를 불러놓고 아간친라 지어는 출라
끼지 한라 그러나 조선 끌흐즈 들에서 아이들이 무리 죽임을 해도 걱정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라 과연 격문하고 흥운한 일이라

순식 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태려 한라

일본이 전쟁을 말할하게 되면 조선 사람들은 일본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에 몰아 넣고 또 무언이
위험해서 조선 사람들을 대중질거를 하는지 알고도 모를 일이라 조선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들이 죄인 공연증을 내 줄 것이 사실이 아는가 조선 청년
들이 준인 복^복에서 제외되고, 가수 대학들에서 가지 않고 출행 면허가 거지 단
된다 이어서 리운 모욕과 멸시와 괐시가 있겠는가! ^{여기} 풀려 청년들이 전선에
내보내 말라고 대길했으나 쓸데없는 일 무청년들이 다른 민족의 성을
벌여 가지고 전쟁에 참가한 일이 있다

나는 „극성 끌흐즈“에 있으면서 주로 문화사업을 했다. 예술도 있고 농장을
돌아 다니면서 국어의 전세도 이야기하고 특수한 조합원들이 떠난 천양도
했다. 끌흐즈 미구락부를 건설하는데 내가 많은 일을 했고. 어느 한 끌흐즈
점행부 회의에서 혼에 구락부를 건설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자 다음 점행부원
들이 내 의견은 반대했고 끌흐즈에 든여 열리고 한라 그때 끌흐즈 위원
장이 길 명하였다. 이문은 내가 재미거우에 있을 때 무히 따는 친구라
그때 나는 소년단원이고 범영화는 표창원이었다. 내가 끌흐즈에
구락부를 건설하자고 범영화^{영화}마루 마득 졸나렸다 그랬더니 1영화가
점행부를 소집하고 끌흐즈에 구락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시작이
절만이라고 한해 간에 끌흐즈에 구락부가 열리고 구락부에 영화가
매치되고 도서관이 있었고 구락부가 문화 중심지였다. 조합원들이 저녁
이면 여기와 서영화로 구경하고 책과 신문을 읽었다.

1943년 8월 15일- 어머니의 환갑 날이라 한도령 생연한 살이었어
살재 할 날을 겪어 오신 어머니를 위해 환갑을 차리고 동리 할머니들을
모시자고 하니 어머니하시는 말씀이 - 사람들이 전쟁場에서 죽어가고
너의 아버지도 안 돌아 오셨는데 내가 떠나는게 편안이 앉아서 환갑생은
말겠느라. 아래 그런 생각을 하니 말라 "하신다 그래서 내가 - 거령함^함"
말씀암^암하라"하고 환갑 날을 열렸고 그러다가 1945년 5월에 전쟁이
풀나자 7월에 어머니의 환갑을 차렸다.

포항 앙 - 하야롭스코

1945년 8월 9일에 쏘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 다-
쓰리드네. 칠칠코 구역 군사들 전부에서 처음 조선사람들을 군인복무에 부른다
그때 우리 조향이나, 김학천, 오기환이 구역 군사들 전부의 징병장을 말았라
징병장을 말아든 나의 가문도 두 가지라 천째는 조선사람들을 군인복무에 부르니
이제는 조선 사람이 사람의 주실을 하게 됐라는 기쁨 둘째는, 조선에 가게
되면 혹 아버지를 만날 수 있라는 기쁨이라

그때 라스케츠 주 각 구역에서 29명이 징병됐다 8월 15일에 (날자 뚫으려
못하라) 우리 일행이 라스케츠를 떠나 연해주 우수리아스크 시에 도착했라
이 시에 2~3일간 체류하면서 연해주 군사들 전부의 해방한 제사를 알고 군복을
입고 어느 한 포병부대에 편입되어 중국 도시들인 훈춘, 톼정, 길림, 놀루우먼을
지나 조선땅에 들어섰라. 군용 열차가 중성역에 와 같는다 풍성시 "선돌각"
선내 고량봉산동이 거칠이라 사람의 제가운 때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데
들어가 보고 갈 생각이 간절하라 그러나 군연된 몸이라 할 수 없이 봉산동은 마라
보고만 있었라 우리가 한 군용 열차가 중성, 화령, 구령, 청진, 주로, 철진, 간청
홍천, 흥천, 함흥, 고안 고개에 깔든 역들을 지나 우리는 이 역들에서 시민
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라. 시민들이 조선 음식을 많이 갖추어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먹으라고 한 후. 너거나 기꺼이 우리를 표송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라.
여린 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웃으면서 기뻐하는 그때 이 장면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는다.

선민들이 우리를 고마운 절을 한다. 러시아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군인복무를 할 수 있는가? 이때까지 어떤가 조선 빨을 뛰지 않았는가?
쏘련에 조선 학교가 있는가, 음식제도는 어떤가 등, 깡도 질문을 했라
드리어 8월 27일에 우리 군용 열차가 평양역에 들어온다 그리고 평양
시민들여, 물도 준대는 우리의 해이인자!, "물도 준대 말세!" 조선 민족
쏘련 민족 친선 말세! "기차 깔든 트카카트, 를 들고 나와 열렬히 밤이
햇다. 그때 일이 눈에 한하다.

나는 평양에 도착하자 25분간 허우정치부에 배치 됐라 구로 정치
부에서 일비간 일하라가 평양 양동국에 가 일하라는 정치부의 명령을
받았을 때까지 밤을 시작했다 쏘련기술자들의 아침 일은 12시로
단기간 내에 양동시설들을 복구하고 양동을 시작했라. 해방된 조선
사람의 철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사람들이 제대로 전하는 새소식,
사회인사들의 연설, 노래를 듣고 떡 만가대 앤라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1만 송을 약 4000 대하는 사람들은 일었다 이런 실례가 되었다. 한 번은 쓰로련 1만 송 원(그때 쓰로련 말 1만 송으로 일었다)
마끼세브와 일을 끌어고 점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에게 들을 때
마끼세브가 경상을 입은 일이 있었다. 그때 이런 일이 자주 일었다.

~~북조선의 쓰로련이 대회에 1만 송 첫 번째 모란봉 경기장에서 차운으로~~
28 주년 10월 혁명 기념행사가 성대히 진행 됐는가 나도 모르겠지만
식이 할가 했고 그 날 주식 단이 25군 사령관 치쓰 짜코브 대장,
북조선 팀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조만식을 이룩한 사회계 인사들이
등장 했고 차쓰 짜코브 대장이 기념 보고를 하니 조만식이 축하연설을
했고 차쓰 짜코브의 보고를 전통혁이 번역 했고 기념식 주식
단에 깊은 성도 있고 그의 죽은 자들도 있었다. 이 날 나는 차운으로
조만식을 보았다 흰 두루막이에 흰 수건으로 머리를 지그시 둘렀다
거는 작은 편이라 이문어로 선 청년끼에 헬이 알려져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조만식은 두심히 ~~보았다~~ 눈여겨 보았고 조만식
선생의 차후 운명에 대해 차츰 약간 말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평양시와 북조선의 도시들과 마을에 쓰로련 선을 내용으로
한 들어들과 주호들이 많아 나온 일이라 박쓰-영겔쓰.
레닌, 쓰랄린 호상화들여들도 걸려 있었고 때면 8-15 기념행사가
평장리 전투의 옆는데 기념행사에 깊은 성이 깨진 적이 없었다
깊은 성 자신이 조선전선을 물고 떠나고 와쳤다.

1947년 1-2월에 평양시에서 조.시.준 연전위원회 대회가 전용
됐고 이 대회에서 쓰랄린 대연수에게 보내는 감사문이 차택됐다.
그 감사문의 첫 머리에 이런 말이 있다, “평화와 안전을 간망하는 것은
인류의 해양이고 물의와 칠략에 까지 무모한 속에서 해제는 일정을
광명의 세계에 오른 개한희세의 후원자 쓰랄린이시여!”

깊은 성이 이 대회에서 “오늘 북조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있어서 쓰로련의 1만조가 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 했고 그 당시 깊은 성은 쓰로련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올챙이 올챙이적 생각은 못하고 개구리 한 생각만 하는 격으로
깊은 성은 올바른 예한 말은 끼고 빠른 소리를 하고 있다

1952년 8월 강전전회가 있을 후 쓰로련에 대한 깊은 성의
해도가 180도로 돌아온다. 1만조경향이 끄끌적으로 들판에

나하나기 시작했다. 미에 그런 이유가 있다 시이사왕이라고 시간이 가면
사물이 면하는 법이다 쏘련에서 1953년에 독재자 쓰랄린이 죽고
흐루쇼브가 정권을 장악했다. 흐루쇼브가 정권을 잡은 철을 무너
쓰랄린의 반란을 놀날이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에 겁을 뒤집어 떠는
김 일성은 등장이라면서 독재자 폭행을 듣고 저고 소리 "사상 결호"라는
표현에 쏘련, 연안, 남조선에서 온 우는 한 간부들을 죽이고, 가족과
정체를 살피고 외국으로 축출하기 시작했다. 김 일성은 노년간, 광청에서
자라 엄격한 양원들을 실무하기 터려던 것인 것을 깨닫고 아주 묵진
술책과 망념으로 쏘련에서 온 간부들은 수형했다. 허가 이를 암살한 사건이
이에 대한 살례의 하나와 이런 살례도 있다 김 일성이 한편은 김대
총장 유흥훈을 물려놓고 - 유흥훈 등두, 허가의 뜻에 미식을 써우는
것이 어때지소?"라고 물었다 고지식한 유흥훈이 - 그걸이 좋겠습니까 -
대답했다. 그는 유흥훈이 김대총장에서 쫓겨났다. 노예 국가를 다스린
사람이 ~~아직까지~~ ~~마련해~~ 망령으로 사람은 잡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총살~~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홍성관 대첩이 홍길동을 알해하기 위해 꾸련변 측약
하고 옥락한 행동을 만들게 한다.

"사상 결호"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여 6.25에 대해 잠깐
말하자.

6.25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하는 문제는, 군사 전문가들, 역사
학자들 그 누구에 권리 있는 연자들이 국립을 주장했다. 나는 군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언급하지 않고 6.25 당시에 우리 1만 송일군들이
어떻게 일했는가에 좀 자세히 말하자.

북조선 양동이 6.25 전쟁을 끌고 리승만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언먼 군대가 38선을 넘어들어 올 때는 군대에 반역을 가하고 일하는
보도를 깨끗이 전했다. 6.25 전쟁이 만만 되기 전 3일전에 ~~1만~~ ~~1만~~
~~1만~~ 중앙당 선전부장·1막 참모이나를 무른다. 그래서 선전부장은
찾아갔다. 막 참모 원장 무장이나 보고 - 내 말을 자세히 듣소, 이제
사흘 후에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인가. 동두는 직장에 돌아가서 주야작영을
조직하고 수수한 1만 송일군들을 어리석게 보내지 마오. 이것을 동두만 알고 있노,
바로 와도 막하지 마오"한다. 나는 무장을 어서 나와 직장에 와서
24시간 강연제를 조직하고 일꾼 1만 송일군들을 어디나 보내지 않고
있었다.

아니나 다른가 신장부장의 말이 끊임없었다 6월 25일 아침 라설시에 중앙당에 있던 사람이나 한데 멀뚱한 봉투를 갖다 주면서 - 아침 여섯 시에 개봉하고 망송하라는 것이다. 라설시가 되자마는 아침 라설시에 라승만 군대가 우리 국경을 침입해온 북조선 인민군이 '한국을 가리고 안다'라는 망송을 했라. 그때 평양 막솔이 매시간 마라이 볼트를 전했다. 김일성이 전쟁이 시작된 이튿날 - 미리 정부를 태도하고 냄"반부를 해야겠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가치와에 위대한 통일을 끌 내자"라는 망송연설을 했라.

지금 와 생각하면 중앙당 선전부문이 사흘 후에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상해 알았는지 가히 알만한 일이라 전쟁을 먼저 시작한 자들이 아니고 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마감한 일이다.

사흘 끝에 연민군이 죄운을 친다. 떠소식은 빠시 바라 되풀이 풀이 험다.
그러나 이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라.

10월 20일에 평양이 한 달 됐다. 이 날까지 10동 빌'들'이 평양을
떠나지 않았다. 선전성 나를 성들이 평양에서 퇴회했다. 그러나
우리를 퇴회하지는 중인 것 같지 않다. 말 11시 40분에
중앙당에서 회가 이어졌다. 당선이 정신이 있소 오는
말드로 직원들 뒤로 밭장을 떠나고, 집차 두 대를 보내오"한다. 그래서
내가 주의 회의를 소집하고 떠날 줄 미를 했고 10동 송연들녀 성들을
집차에 해주고 아주 필요한 기자재를 살고 평양을 떠났다. 멀리서
제동성읍을 넘나들 순천과 개천 사이에 개고개가 있다. 아령을 끊고
집차가 겨우 올라 봄 이를 오른다 때로는 사람들이 멀리서 아령을 넘었고
퇴현에 다니거나 날이 맑는다 더 잘 수 있는 땅과 직원들이 길을 걱정해
있었다. 암에 산 꽁이 호통을 걸고 도로를 살피는 일도 일었다. 퇴현을
와서 차를 가지느라 아득기를 기다리는데 적기가 우리 차를 발견하고
기총소사를 했고 결과 두 집차가 진소 됐다. 기자재가 라하에 놓여서 폭포에
~~크게 뛰어~~ 뛰어 ~~있~~ 암하 깜었다. 여기서 무려 걸었다. 다리 아프고 배고팠고
그래서 가라가 콜'을 만나게 되면 생공을 먹기도 했고 한 꼷은 지나
갈라니 산 밭에 작은 말은이 있다. 직원들이 나보고 - ~~더~~ 데 던져놓으니 저
작은이들이가 봄시라 혹시나 벽을 건이 있을지를 조사나라"한라 매가 고르기는
마치 일한이다 나도 호의심을 가지고 - 버리 들어가 죽을 심사라" 했고
한 집에 들어가니 주인은 없고 대지굴에 깔끔 대지 한 말이 있었고

한 직원이 나보고 - 의원장 동지 채비지를 참음시라 - 한자 그대 내가 - 그대 쓰는 안 되오 주인 허가원이 어찌 남의 물건이 손을 땐 한 말이오, 애고픈 대로 참소" 했자 좀 일다가 또 한 직원이 채비지를 참자고 나를 졸라 땐다 그대 내가 - 저 채비가 폭격에 죽는 것 보라 애고픈 사람들이 살아 있는 건이 낫지 않은가 - 생각하고 직원 보고 - 그러면 당신을 소원대로 하시오 - 하니 좋아 하여 직원들이 손을 걸고 재빨리 잠아서 솔에 넣고 끌어라. 역사 황후 이길을 염두 주인이 들어 온다 라들 강황 대한자 내가 주인 보고 - 주인님의 일는데 도적 금방사를 해서 안 됐습니다 - 하니 주인이 - 월, 천안에 말씀입니다 채비지를 참기를 잘 했습니까 먹일 것도 없거니와 폭격에 엎어 질 수도 있습니까" 한자 주인이 드리가 애고픈 줄 아파하는 모양이라 결망으로 들어 가더니 총 쌀 糜 을 내라 주면서 맘을 짚느라고 한자 직원들이 열시구나 좋아서 주인이 주는 쌀을 만감끼(만마) 가지고 맘을 짚었고 고기와 암을 푸어 놓고 애고프던 길이 잘 먹었라 이 집에서 자고 푸름해서 길을 떠나라 이 집에서 나오면서 주인 보고 - 적지 않은 고기 같은 맘드시오 - 하고 돈을 주니 - 크게 막는 말씀이요. 나도 갈이 먹었는데 그리고 간체를 내놓았는데 - 한자

이 집을 떠나 자강도에서 그의 멀지 않은 멀하이도 착하자 물의에 적기 한 대가 폭탄을 내리더니 그대서 직원들이 길가에 있는 초가집에 들어가 를을 갑후 염자 꿈고름지도 침이 폭풍에 무너졌라 적기가 갑후 직원들이 무너진 집 속에서 나왔다. 그런데 경리부장이 파편에 팔을 상했라 가제봉래가 뛰어 서 고의를 끊어 가지 산채를 써냈라. 멀하를 떠나 한참 가느라니 개천이 보인다 직원들이 목욕하자고 한자 내가 좋아고 헤나 전쟁사와 목욕도 제때에 빛하고 머리를 빛 갈아입어서 물에서 이(輶)들이 드실 걸 알라 결례 내가 힘들었다 그래서 모두라 내의를 벗어 들어 내 두들이 염자 이가족으 리고. 이런 "우쾌한 노름을" 한참하는데 날레 있는 적기 두 대가 우리를 발견하고 내리 쏜다. 저마다 풀속에 들어가 를을 피했라. 그랬더니 한한 물과 한한에 마자 빨리는 쪼각들이 러 수석웠라 부상자는 염얼라 구사일생으로 거이 한주일 만에 자강도에 도착했라

그 뒤 자강도에 지방 안동국이 염얼라 그러나 출역이 악해서 윈거리에서 들판에 빠졌다 마도시에 와 있을 때 전직원이 물살한 면혔라. 한 번은 점심시간에 채비 취사실로 들어 오는데 .. 29-29" 두 대가 활려들라 올려다 보니 우리를 폭격하리라는 것이 흘림 염얼라 그래서 맨리를 강공호로 들어 가자고 내가 소리쳤라 양공호에 들어서자 마자 폭음이 30

키를 째는 듯 하다 죽 잡잡하자 망공호 속에서 나와 보니 우리식 강이 작한데
맞아 간데 올레없라 그때 적기들이 죽은 듯에 날아들었라 면 우리 적원
들이 점심을 먹다가 물살쳤을 것이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물에 소름이
돋는다 하루는 "비-29" 형세 대가 자강도에 휘발유를 내리 뿌리고
불을 달았다 자강도(강제)가 거만하더로 이런 일이 있을 후 자강도에 려
넣을 수 없어서 망송국이 만포로 이동해보니 여기 와서 임시로 망송국을 설치
하고 망송해였다. 시월이라고 짚자 된다 적기 두 대가 칼려들어 자강도
형식으로 만포에 물을 질렀라 그날 명월에 있던 환자들이 명실에서 익히
나오지 못해 다하루를 일이 있었라 이날 시민들도 적지 않게 죽었라. 임시로
설치했던 망송국도 소각 됐라 그래서 내가 망송원 몇 명과 가술자 몇
명을 데리고 만포에서 거이 40리나 되는 고산진을 완파하면서 망송원과
그 당시에 여기에 준대 망송국이 있었라고 산진은 중국이 지책이라고 그래서인지
김 일성이 자기의 라족들을 데리고 여기로 피신했라.

1951년 15일에 망송위원회 전원이 만포를 떠나 선창으로 도당양에 들어
왔다 거리가 향항이었고 아직 건물들이 놓고있고 연기가 차득하다 전쟁
물길이 금방 깨끗한 것 같다 말 불일 곳이 없다. 상임위원회 망공호가 빠져
있어서 언언준비 후회 할 때 사람들을 충살보니 혼라 참마 피흘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처럼 것은 가릴 때가 아니었다 적원들이
망공호를 닦아내고 여기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일에 학수해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음료수, 전기, 식량 문제다. 이 문제들이 절차적으로 아직 처리 풀리었다.
리蹲과 리蹲안 준비가 끝나고 간 통조림, 사탕, 가루, 가루 우유 21부에
식료품들을 모아 드리었라 마흔대로 먹고 살 수 있을라 그려다가 식료품에
독약을 섞었는가 해서 처음엔 먹기 시늉 먹을 뻔다 알고보니 그런 것은 없었라
차차 민족 국가들에서 옆으로 놀라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먹고 있는 문제가
아쁜 고비를 넘었라 각성들, 국들이 도당양에 들어온 라거리가 줄 할가를
여기 살았라. 수도가 복구되고 산정들이 열렸라. 학교 명연들이
문을 열었라. 그러나 폭격이 심해서 사람들이 폭격 속에서 살아야
했라 그걸 도움만 돼서 살 수 있었라. 이 때 멀어서 몰라 봉지라
죽잔이 건설되고 망공호까를 땋다. 망송국이 온전봉 망공호로
이동해졌다. 좀 안전한 데서 망송할 수 있었라 적기들이 빼밀
갈이 큰 강봉을 폭격한다. 동경 망송이 10만 개이 망송이 러는 놀라운
수차 전한라 그러나 우리 망송이 정지되는 놀이 열었라

여기에서 기막힌 한가지 사실을 꺼내려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1951년 8.15를 대대적으로 기념하기로 했고, 중앙당 지시에 따라 각종 예술단, 주용행주단, 혜복단, 학생들의 기념 축하를 알 낮았고, 1950년 8.15를 기념하기 위해 예술단을 출연한라는 것까지 망송한 뒤 그런 데 전쟁시에 중앙당 지시에 의해 일보예보가 굽지 됐다. 일기예보를 들고 적기들이 폭격하려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습기 짹이 없는 일이라 적기가 뚱양일기를 드는 줄 알고 8.15를 앞두고 망송이 자세한 예술프로그램을 전하는 것이 좀 더 눈에 띄기 내가 선전부장을 찾아가서 8.15 예술프로그램을 계속 늦어도 좋겠는가 하고 선전부장을 보고 놀으니 - 그냥 계속하고 무서울 걸 없소 중앙당 지시도 한다. 내가 속으로 - 아무 공중망이도 없이 무언을 알고 저런 대량한 소리를 하는가 - 하고 생각했고 가히 알 수 있는 일이라 전쟁 당시에 쓰Dam린이 모스크바에서 시립극 흥을 굉장히 기념 했고 크리스마스 흥에 쓰Dam린은 미혹한 강, 국가지도자들이 등단했다. 그때 모스크바 상공 망위가 잘 돋아 있었고 적기들이 함부로 웃는다.

아마 김일성은 이것을 알고 자기도 한번 전쟁시에 8.15 기념하면서 대량성을 차광해 보겠다는 허복에서 나온 것이라 텁텁하다

8월 14일에 전쟁개시 후 제일 큰 폭격이 있었던 적기, "미-29" 180대가 등원했고 한라마침 흐린 날씨였다 폭격이 거이 세시나 계속 됐고 이날 밀집지대 척도망이 제일 큰 손실을 입는다 점들이 라파피되고 많은 시민들이 죽었고 높이 큰 폭격이 있어서 밤에는 빛으로 빛나고 ~~죽어라~~ 사람들은 ~~죽어라~~ 점에 있더라 그런데 낮 폭격 본다 놓지 않은 콜 야간 폭격이 있었고 이 폭격에 사람들은 그려 죽었을 텐데 자동차들이 시체를 실어 올라 올바나 죽었는지 물론 라미에 죽거나 미루어졌다. 지금도 그때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끝에 재생하다.

김일성을 미혹한 당시 지도자들이 8.15를 앞두고 적기들의 폭격이 있는지라는 것을 예전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 시켰다면 말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다.

김일성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있다 그러나 역사는 죽지 않는다 이

엄중한 사실이 라시는 되풀이지 말기 위해 후배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락된 사실은 이에 첨부하였다

1946년 8월 어느 날 끝자락에 뜻하라 그때 거리에 맑쓰-엔젤쓰, 로기념
쓰-클린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어느 날 밤에 이 초상화들에 기총 사격을
했다. 이 사실을 둘러싸고 말성이 많았고 그러다가 이것을 조만식의
조직한 것이라는 어느 한 사람의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하루 아침 조만식을
재판도 염두하고 "고려 호텔"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를 엄격히 감시했다.

6.25 전쟁이 시작됐다. 후회 시기에 조만식은 재판도 없이 총살되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다. 출판물이나 대안 사실은 실리 않고 양동이 침복은
지지였다. 북로선에서 이런 엄중한 사실들을 깔아뭉개는 것이 관례로
됐다. 그러나 뒤가 되면 이 법적 관행들이 표면에 놓아두거나 하고 나누
줄게 않는다.

전쟁은 사람의 향심과 심리를 빼는 라첨판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
시기에 그렇게 좋던 사람들의 정직 전쟁이 시작되어 친구고 뭐구나
웃어버리고 제 살 주렁 막하는 사람들을 가는 보았다. 식솔들은 이익
평양에 있는 줄 미련히 알면서 나보고 식솔들을 빨리 노가시기라는
~~친구는~~ 하나도 없었고 10월 10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날에 늦기
까지 사울시에 일하는 이 허가이 전화로 - 남동부 식솔들을 보내오 -
한다. 그래서 내가 - 누는 아직 식솔들을 보내라는 산무의 지시를 못 맡았
습니다 - 하니 허가이 - 내일 저녁에 서평양역에서 중앙당
문건을 실을 기차가 뛰나오. 그 기차에 식솔들을 차장으로 보내오 한다. 그
당시에 기차가 놋에 놋 뜯는다. 땅에 뜯는다. 식구를 기차에 보내라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보내야 했다. 그
기차에 누리 식솔들을 놋에 놋 뜯는다. 이를 날 저녁에 집을 대강 대강 꾸려
가지고 식솔들을 데리고 서평양역으로 나왔다. 화물 훈차가 서 있다 내가
역장 보고 - 이 차에 식솔을 보내도 좋겠습니까? - 하니 역장이 -
그런 지시를 알았습니다, 말씀해주시오 한다. 말이 끊는다. 놋에 놋 뜯는데
기차가 뛰나지 않는다는 그때 내가 역장을 보고 - 내 기차가 뛰나
놓나? - 차를 끌고 놋에 놋 뜯는다. 장애가 되지요 한다. 내가 열심
하고 짐이 왔다. 그 후에 안 일이지 말고 날밤에 기차가 뛰나고
있다가 새벽 네에 뛰나 가다가 평양에 놋에 놋 뜯지 않도록 성급히 날에
갓과 세웠다. 그 날 열두 시나 돼서 미-29 헬기와 허脖을 툭 격했다.

적기들이 통성려널이 두터운 줄 알고 쇠널의 좌우편에 만족함을 내리부었라
사실 통성려널 두레이가 네네힐 밖에 안된다 만약 그날 적기들이 쇠널복판을
폭격했라면 우리식솔들이 전멸했을 것이다 그때 서령약역에 잠입한 미국
간첩이 역장과 짜고 기차를 안보내고 일자가 고의적으로 둘이 터자 통성려널이
풀어 넣었다 그 날 저녁이 늦게 사육실에 앉아 있는데 계획위밀간장을 놓았던
전화로 - 위원장 돈지식솔들이 통성죽속이 있음을 알리자 러리오시오 - 한라
그때 나에게 차가 있고 다른 사람의 차도 알 수 있었던 라 그래서 내가 걸어서
통성려널은 찾아 갔다 맘중이라 내가 굴속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그때
까지도 접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물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을, 아무자리,
손가락, 일체 소지품을 굴속에 풍랑내 머리고 식솔들만 몽마 가지고 평양에
들여 왔다 평양에 2·3간 였다가 조영철의 차편에 식솔들을 각각도로
쓰렸다 여기도 안전치 못 했지만 식솔을 할인으로 보냈다 그 당시에
1949년 9월에 평양에서 해여 난세에 아들 보와가 할인가에 10명에
걸려 생포당한 이후 하기로 중국의사가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였라 그
운데는 해산 갈라 그러나 나는 그 운례를 못 같았라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운례를 잊지 않고 있다. 알뜰이 된 내 식솔이 할인에 가 이모저모로 중국
정부의 선세에 살라가 정전이 되자 평양에 왔다

식구가 할인에서 오기도 했으나 평양이 살풍경이라 말물일 곳이 없더라
사정이 그악하게 됐다. 그래도 여러 살레 있겠지 하면서 한봉 망공호 주위를 라
돌아보았다 결국 폭격에 역관 날은 짐하나를 발견했라 그 짐을 대강 수리
하고 식구들을 살피웠라. 이 짐에서 거의 열년이나 고생으로 살다가
죽어 암산 가숙에 2층 간부들집의 주택이 건설되자 거기로 이사온라
주택은 비교적 현대적이다 한양장치, 목욕탕, 수도 지류의 편리시설이
가족여제일 라 그런대로 살수 있었던 하루는 1에라가 나보고하는 말이
- 이라는 정전도 되고 살피한 집도 있으니 우리 어머니를 놓여옵시다 - 한라
그려면 그렇게 놀라고 하고 1에라를 우즈베크스 딸으로 보냈라 그때
어머니가 ..국정조합"에서 말그당파 갈이 계셨다. 그런데 수속이 잘
되지 않아 1에라가 "국정'클로즈"에서 죽죽해 됐다 그래서 어머니 1에라
보고하는 말씀이 - 나는 뜻가도 일어나 땅을 (내가 그때 를이 10명이나
임원 중이었다) 사람을 두고 와서 그렇게 오래 있어서 되겠냐, 이말리
집으로 가거라 - 한라 1에라가 속히 집으로 가라고 어머니가
속편제를 과두하고 세상을 떠나셨라 이것이 미주이라 자식에 대한

여러사의 사랑은 아름답게 지속되며 후궁 무진하~

35

나는 이집에서 살련이 올때까지 살았라 우리나라 집에 기억복, 전통혁, 허벅 그만에 동수들이 살았라 일요일이면 동수들이 우리나라 집에 와서 주파(한법과 미술한느를), 장기들을 앉아 점심도 우리나라 집에서 먹는다 즐거 말하는 것 같아. 밖에 길간(길책)에서 이해아름스크에 와서 우리나라 집에 얼마간 있었으나. 길간이 하루 말이 — 봄식이 나오. 우리나라 일요일이면 봄식의 집에서 오라 놀지 않았소. 그때 우리가 둘 뿐이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소. 그런데 누가 우리가 한 이야기를 하나도 뻬. 안 놓고 대령양 안전국이 가 ~~나~~ 다 아치엇 나오. 봄식이도 아라 삶이 그때 살련서 온 동수들 많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속에 고자질하는 놀이 있든 모양 이오. 그리고 안전부 수들이 봄식의 집을 만동소줄이라고 했고. 봄식이 모기를 잘 해보소. 안 왔려면 수들의 맘이 될연한소한라 — 그때 내가 — 돼지 눈으로 복면 세상 만들이 라 돼지처럼 보인다오. 만동수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이라 만동처럼 데 보이는 거이오 — 뻬다.

1954년 ~~여름에~~ (3월 각일에) ~~날마다~~ (날마다 기억안한라) 대령양에서 시랑열성자 대회가 소집 됐다. 이 대회가 '막창복, 기억복, 전통혁'의 "만랑종파" 행에이 관한 문제를 휴금해보다. 누도 이 대회에 참석했고 이 대회의 삼일전에 시랑에서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 나하고 하는 말이 .."이런 시랑열성자 대회에서 뛰어난 창 등자가 흐를하기 돼 있습니까" 한다 그때 내가 — 그 사람들의 만랑종파 행위를 모르고 이렇게 내가 흐를한 말이요. 그리고 누가 시기는 흐론을 하고 싶지 않소 — 하고 딱 거절했고 이 대회가 거이 다섯 시나 전행 됐고 각고자와 흐론자들이 암에 거풀을 끊고 막창복, 기억복, 전통혁에 대한 깨알간 거짓 말을 들여놓았다. 이런 실례를 말할 수 있다 즉: 전통혁이 한설야와 같이 인도로 갔을 때 전통혁이 한설야를 죽여 자고 인도의 한종은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라고 한다 이어서 러한 거짓 말이 려 있겠는가! 안 빡디 흐론이 "걸작"이라 그는 흐론을 하면서 깊연성의 만세를 세웠거나 외쳤다 군중이 기립해서 깊연성의 만세를 무른다 들키기 아차아차했고 내가 속으로 "사람의 힘을 쓰고서 이렇게 자기의 양심을 달아 먹을가 이어서 러칠 땐 피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막창복, 기억복, 전통혁이 만족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이 정의를 위해 죽을지언정 흑합을 하지 만아이스 할건이 아님가!

35

여 대화가 끝난 저녁에 내가 전 동혁을 찾아 갔자 내가 동혁이 물고 -여보, 동혁이 한 걸이와 같이 인도로 갔을 때 한설야를 죽이자고 종은 골목으로 끌고 들어 갔다는 것이 사실이오? -하고 물으니 - 동혁이 내가 뭐 속이 말아서 한설야를 죽인단 말이오, 그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오 한자 그래서 내가 -그려면 왜 암약을 못 했소 -하니 전동혁이 - '암약해'야 쓸데있소 자루 짚는이 아기는 땀이오 -한자 내가 기억복을 물고도 이런 향의 미숙한 말을 하니, 기석복이 -봉식이 자기가 강해 보지 못했으니 까하는 말이오 정작 강해 보오 -한다. 그래서 내가 -석복이 사람을 잘못 알았소 나는 징창이 아니오 잘못이 있는 이상 그 누구의 앞에 굴할 생각이 없소 -했다 나는 석복에게서 이런 말도 들었다 -나는 그날 너무나 격분하고 원통해서 대동강이나가 까마지 죽을 생각까지 했소 -한자 내가 - 그것은 이같한 생각이오 강원이 죽는 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기꺼이는 할아버지연정 눈물을 흘릴 줄 아오, 1만종파문자 한눈이 있어 젓자고 좋아할 걸이오 -

이 대회에서 '악 창복의 친구한 사람의 리둔일의 호頓이 고개쓰라기 짝이 없었다 리둔일은, 자기가 그 누구에게 잘 보일려고 악 창복을 모함하는 바탕으로 이양심적인 말언을 했다 리둔일 - 저 악 창복이 ~~하는~~ 내가, 정로신^는 주필로 있을 적에 나를 찾아와서 돈 미력질하기래 내^끼 돈이 엎라고 하니 이렇게 큰 신문사에 그만한 돈이 없겠는가 하길래 내가 신문사 돈은 줄 수 없리^고 라고 말했고 아주 자랑스레 짧은 보좌 비밀을 보신지 책에서 냉지 못하는 말이다

'악 창복이 다른 것은 몰라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청렴한 사람이라' 악 창복이 장기간 회고간 무직에서 일했는지 그점에 들어가 보면 긴 막대를 둘러도 거칠 것 하나도 없었다 ~~회^회창^창이 같은 사람을 직에서 뽑겨 나아가~~ ~~할 때~~ ~~직에~~ ~~제~~ ~~하나도~~ ~~한자~~ 이런 식례도 있다 '악 창복이 회직 외에서 우리 ~~집~~ ~~집~~ 이자 있었고 하루는 악 창복의 처가 손가방 하나를 들고 올라 와서 이 가방을 두었라 말하고 한마연서 가방안에 멀것이 있습니라 ~~스~~ ~~집~~ 땅이 씹갈 때 땅 ~~때~~ 주려고 가지고 있던 현검과 둘어 있는 바리한자. 내가 - 네려 마시고 두십시오. - 했자.

회 창복 같은 사람을 직에서 뽑겨 다른 데로 이사할 때 집이 세차나 됐다 고 한다.

우리 "사상검호"에 대해 오악해서 말하였다.

북조선에서 사업하던 쇠련조선인 간부치고 사상검호의 그 뜻에 안 걸는 사람을 하나도 믿지 않고 평균은 "사상검호"에 대해 직접 사상검호의 쓴 맛을 본 나의 동지들이 잠자와 선물들에 빛을 끈을 염려하고 그러길 내 이문제를 구체이 말하지 않아도 좋을걸 알라. 그러나 사상검호의 형식이 각이 하라 그래서 내가 강한 "사상검호"를 추적해서 적어 볼가 한다.

"사상검호" 사전에 배울 때 중앙당에서 온 두 사람이 1·양송원^元들을 들풀라, 배운 전수를 문호한다. 직원들과 강화한다 ~~등여로~~ 호론을 준비한다 등 여러 가지를 연설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던 데, 한 명은 나의 운전수가 나쁘고 - 위원장 등지 당에서 오신 분들이 위원장 등지의 신분을 나하고 놀아 봅시다 - ~~한마~~ 아마 "사상검호"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한~~라 그래서 내가 그 - 직장에서도, 내가 라 알고 있노" 했고 그때 책임자 운전수들이 운전무와 혼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럴 이래 운전수와 함께 말할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사상검호"가 언제나 시작되는가 해서 고민된다.

1957년 2월 21일 시드리어 1·양송원 회의 초금강총회가 열렸다. 총회가 중앙당에서 지도원 김준기가 참가하고 회의 중요성과 긴장성을 강조하기 위해 김일성동생 김영주가 참가한다 이 사람은 늘 5분이나 10분 늦게 온다. 김영주가 오지되면 빤다 기림한다. 주석 ~~만으로~~ ^{김영주 보고 주석을 정한 바} 회의 초금강 미시가 ~~그에게~~ 한다. 그러나 김영주는 그것을 사양하고 어느 때나 뒤 좌석에 앉아 있었던 김영주가 마침 없어 끝까지 참가했다 그런데 어찌 될 일인지 김영주가 한 번도 알면 안 했던 것이다.

초금강 미시가, 오늘 강총회는 비공개 강총회라 하니 회의정을 만들었다. 우리 강총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남봉식 등무의 (둘째 등지, 등지하고 무트련것이 등지하고 안하고 등무하고) 안한다. 북조선에서는 학급 사람을 등지하고 안하고 어느 때나 등무하고하고 학급 사람을 삼무 사람을 등수하고 안하고 등지하고 한다. 사람에게 대한 차이들이 뚝조선처럼 심한 나라를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사업 작품에 대한 문제하나 끝이다"라고 하고 강 중앙에서 온 간지도원 김준기에게 연설을 했다 김준기는 거의 40분이나 짧았는 연설을 했었다. 그의 연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봉식은 장기간 조선중앙 1·양송원 회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로동강원으로 올남쪽 할 입증한 '안량적', '안연면적' 좌우방을 멀리했다 사실은 아름다."

남봉식은 고의적으로 한 기자가 쓴 1·양송기사에서 우리의 미래한 선 김일성 수상님(그때는 수상이라) 명함을 네 준다나 차워 머물렀다.

1957년 1월 10일에 평양시에서 열린 시장열성자 대회에서 호론하는 시장의 자리를 거절했다, 전쟁 시기인 날봉식의 운전수가 29차를 하며 남조선으로 도망쳤다, 맥아더는 "미국이 여울을 끌어다"는사를 망동안 했다, 전쟁 시기 양파 혐의도 안하고 직원들을 강제로 날씨 말을 하루끼 했다. 폭격이 심한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밖에도 날봉식 멀한 미간적 행위가 많다.라고 한다.

"양송기원회 초중장 미식도 긴 보고를 했라 그러나 그의 보고가 이상에서 중앙장 지도원이 렬거한 내용을 외우려 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 또 러일을 해야 할 수도 없다.

이상 문제들 중에서 제일 중요 한 문제는 김일성의 아름을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달 이상이나 나를 놀라게 줄었다. 호론이 시작 된 라. 제 마음대로 호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된 명록에 따라 호론자들이 전령에서 걸렸을 때 종이 쪽지에 적은 줄 것을 광복 ~~한국~~ 할 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론자들의 내용이 미숙하다. 그들의 호론을 종합하면 이렇다. "날봉식은 만연적 만연적 문자다 이런 자를 우리 랑에 둘 수 없다" 한시 아니이 랑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랑이 조출하고 헌령화되며 될 것이다 랑을 높으로 날봉식과 같은 문자들과 적극 싸울 것이다 등등이다. 호론에 심여 려가 했는데 나를 랑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뿐이고 랑에 남겨 두자는 호론자는 염았다. 이것은 차라리 알면한 일이라 이상에서 한마디 말이 많았던 명아리 까듯 랑이가 까빈것이기 때문이다.

대회의 마지막 보고 자기 미단을 주라는 것이다 자기 미단만 양심적으로 하면 랑에서 응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총회의 목적은, 내가 '안강행위와 만연적 행위를 갚해보니 높으로 이런 일이 안 볼 수 있으니 나를 응석 해주십시오'하고 대회의 이 목표를 끌고 자백하라는데 있다. 이것은 짜연 천인공노할 어려성이 짹이 없는 일이다 만연적, 만연적 행위를 갚행한 일이 있는 내가 무슨 자백을 한단 말인가 이들의 생각 같애서 대회의 질질 끌고 차를 끊을 결례가 준다면 결국 자백할 것이고 인정해 보통이라 나는 걸장이든 아니든 미출판자도 아니다.

광회의 진행 중에 대연이나 광회의에서 쫓아냈다 내가 회의석에 앉으면 광원들이 어려워서 말을 못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광원의 개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안을 광회의에서 쫓아 놓는 것이 광구약에 위반되지 않는가 이것을 광회가

아니라 일본 현명 대자.-라고.

장회의 진행 도중 내가 두 번이나 중앙당 간부무장 리호순 동지를 만나 (리호순은 내가 조경한자 일본은 소련군대가 감독들을 연고 내용은 문이다) 나를 만난, 만인전적문자하고 함께 나를 인식적으로 '안량적 만인전적 문자'로 만들려고 했거나 이에 대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아니 리호순동지가 지금 때가 그런 때로 죽참고 있노. 동우를 관에서 출장을 찾거요 - 한다 ~~선전~~ 정숙 선을 찾아가서 이런 맹랑한 말을 했라 히 정숙상의 대장도 리호순동지가 말한 것과 륙사하라 참발그랑시에 리호순이나 허정숙이 남북식의 사상걸호를 정지하시오 할 수 없으니라 이럴 사건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김일성 하나 뿐이라 하였는 „사상걸호“과정에서 가장 충실히 양심 있고 자로 놀을 대로 저사, 사회인사, 학자, 작가, 시인, 작곡가 예술인들이 예마하게 숙청된 사실을 폭로해나야 한다. ~~우리 후대들이 이전 역사적 사실은 안아야 한다 그 책들을 주제로 한 사람들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미국적 혁사를 알 수 있다.

회의의 의장이 회의비적 막말이나에게 연권을 주면서 간단히 말하라 한다. 내 말의 오지는 다음과 같다.

당에서 '양송사업'을 걸렸하여 왔다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책 일간지 나와는 아주 말없이 내 뒤에서 걸렸을 진행했단다 이 일이 좀 섬찟하다. 더 말할 것은 없지만 주제에 맞지 못하지 않는다. 디 한가지만 말하겠다. 지난 1980년 6월 25일을 들었다, 직원들과 암화란과 비운전수와 순호한자 이 모든 것이 왜 며칠 뒤에 진행 됐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대일전에 참가한 한 사람이라 부터 무천은 조선해양을 위해 생명을 마쳤다 (회의석에서 수준수준한다) 나는 6.25를 통해 1980사업에 전력을 기웠다. 나는 국가에서 „로혁훈장“ „국기훈장2급“ 그들이 뱃길을 잘 알까. 나는 내가 1980년 만인전적 행동 걸렸다는 것을 전적으로 무인한자 나는 내가 암한 일을 했단다고 말은 속일 수 있다. 강을 기쁘다는 데 중 하라. 내가 알건대 한 1980 기자가 쓴 기사에서 결애하는 수상급의 아름은 너운데나 지워버린 것의 제일 큰 절径 같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짐수할 수 있다, 들키 좋은 륙자 악이도 한두 번 이런 땐이 있다 45분도 못 되는 기사에서 우리 수상급 아름이 열리실 면이나 한복 드셨다 그래서 될로 이상인 것을 지워버렸다. 이것이고 의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 1980 기자를 간원들 높이 내 놓고 라지는 것이 정당하라고 본다

나의 운전수가 전쟁시에 내차를 놔두고 남조선으로 도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이책을 끊지겠다 대우하면 책임자들의 운전수를 중앙당 간부
 무에서 소개하는 것은 기회主义이다. 그리고 책인주의 시, 미국이 여 속을
 놓아 이라"는 시인들의 미ean을 말았다. 이 말은 시를 하는 방송할 수 없다
 서장연성자 대회에서 호통화하는 것을 내가 거절한 것은 사실이다. '악창곡,
 기색복, 전통혁의' 만당적 행위를 연성자 대회에서 폭로하려고 한자
 나는 그들과 일하는 것에 일하는 것도 없거니와 그들의 만당적 행위를 보는
 운트는 것은 누가 시킨 거라 해서 앤디씨처럼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전쟁 당시에 내가 직원들을 데리고 미국과 살기 마련에서 악해 공사를 했던
 그것이 무슨 잘못인가 내가 악해공사를 해서 잔사를 했던 데만 몰라도
 전쟁시키기 이직원들의 식사를 문제려고 한 것이다. 그래도 그것이 잘못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라

여느 한동복가 자기의 호론에서 이런 말을 했던 데 - 내가 전쟁 당시에
 신물줄이 쓴 70 가지의 관료주의를 망송했다. 이것을 당간부들을 기관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남북식 저어쓰기라고 했던 것이다. 신물줄이 쓴
 70 가지 관료주의가 망송했다. 망송여론에 의하면 청취자들이
 망송을 들고 그 신물을 선생이고 관료매운을 잘 듣는 했던 데 줄아쳤던 데
 한다

마감으로 이런 말을 청복 했던 데 강지도연 김증기 동리가 내가
 대일전에 참가했고 나의 무친이 조선해양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고
 하니 김증기 동지가 그것은 오늘 뜻제와는 관계없라고 했던 데. 그러나
 그것이 나의 대격적 혁명 기억 했던 데 (이 말을 하자 김증기가 남북식이
 겹친다고 만막 했던 데)

나의 대격적 혁명을 판결 징는 마지막 날이다

회의의장이 남북식을 대에서 출장시키는데 가하다는 등록들은 손을
들하고 선언한다. 거수수를 끝까지 선다. 나를 출장하는데 가하다는
 수가 30% 밖에 안된다 그래서 두번 거수 했으나 그수가 10번이
 내가 승리 했던 데 기쁨 마음을 금지 할 수 없었다. 중앙당에서 나온 자도원이
 두 말동안 이 봉애를 보람이 있었다.

이것으로 끌나지 않았던 데 나를 계속 살피고 한암 했던 데.

화주는 경리부장이 낫이 새파래서 내방으로 들어왔다. - 회의장
 동지 큰 일났습니다 재정설에서 김일성 수상님의 친척이 재정설련을

봤습니다 — 한라 그래서 내가 — 경리에서 무슨 부정사건이 있소?" 하고 물으니
경리부장이 — 우리가 임사하는 기관입니다, 국가 예산대로 돈을 쓰는데 무슨
부정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한다 그를 다면 왜 그럴게 강황해하고
검찰원이 왔으려니 짐작을 시킬 것이다. 했라 검찰이 시작된 이후 경리부장이
수차 들여와서 재정부에서 검사원이 전직시기에 악책을 한 것을 예밀히
들후고 있다고 한다. 그때 내 생각이 . 여러분들 속에 끌라지 무엇이 나하나는가.
• "책을 짖어서 직원들이 놀았지 진상을 봤나" 나려했다

일주일 후에 경리부장이 재정부에서 온 검찰원을 데리고 내 '안으로 들어왔고
경리부장이 — 이제는 검찰이 끌났습니다 이제 위원장 돈지 수표만 두시면
다 됩니다 → 한다 그래서 내가 — 나는 그 조서에 수표를 둘 수 없소 — 하니 경리
부장이 — 경리사업에서 끊겼을 것 이었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 한다 내가 — 문제는
거기에는 있는 것 이 아니오, 원칙적 문제도 내가 지금 까지는 이 기관 책임은 있는데 재정부
에서 ^는 검찰원이 짐작을 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때 까지 내가 검찰
조서에 수표를 두라는 것이 옳다는 말이오. 나는 일행이 아니오 — 하고 잠아 뛰었라
그러자 재정부에서 온 검찰원이 — 제가 사업 책임이 있어서 그럴게 실례했
습니다 용서 학심시로, 수표를 두어야 주심시로 — 한다 나는 그때 그 검찰원의 행세가
파급해서 그를 훈계 차려했다 내가 조서에 수표하고 검찰원을 봤고 —
다른 기관들이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 했다

나를 "상상으로" 를 해서 땅에서 냄 뿐고 책입각에서 떠나려자 련 야만이
수포로 돌아가자 또 다른 술책을 꾸며었다 이에는 '안송의 원칙' 경리
사업을 둘 허가하고 무슨 부정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흐짐을 삼아 가지고
나를 구령형이 떨어 넣으려던 출책 하자 파한되고 말았다 이 말은 다시
계속 하기로 ^{학교} 순서 없이 다른 사실을 말하였다

1954년 가을에(날짜가 기억 안 된다) 파란 수도 와르샤와에서 국제회사회
(약자, 오이르) 총회가 있었고 그총회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대표로 참석했다 나는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와르샤와 주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로 허락봉 선생이 가져왔다 허락봉 선생은 살련준래가
창진 감독을 열자 감독에서 나온 헉스한 혁명가 말이나 온갖 여러 불쾌하여
한다 청진시민들이 한 거리를 허락봉 거리라 ^말 주를 일이 있다 김일성이 이것을
알고 끝이 상 ^될 까지 올라 함부 사람들을 훌낸 일이 있다, "상상으로" 당시에 이
선생도 속칭 잘났다.

허국봉 선생이 내가 와르샤와에 왔다는 소식은 듣고 한 번은 짐사복에서

짐짓을 차리고 나를 침할라 허국봉 선생 사책을 찾아온다 다른 사람들은
없고 제일 찾사 김창수 하나 뿐이었다 나는 그날 소문을 들었으나 김창수를
처음 봄래봬라 짐짓사가 들어온다. 허국봉 선생은 알는 물이라 그래서 놀은
한잔도 못 한다. 김창수 참사와 내가 술잔을 나누었라 짐짓사가 거이
끌어 속령에 김창수 참사가 내보교 - '암송이' 원회에서 난씨 점을 가진 물이
사령한다는 것을 알고 한 번 찾아가려고 했으나 늘 산 바위에서 놓쳤다
가고 있었는데 오늘 우연히 강신을 만났으니 한마리 물여를 끌어온소 -
한다 내가 그래서 ~~내가~~ - 말씀하시지요 - 아니오. 김창수가 - 강신이
남성물라는 물을 아시오 - 한마리 나는 그때 그 물의 말을 듣고 물이 깊은
진다. 한참 명해 앉아 있다가 - 그 물이 내 아버지 집이라 - 했더니 그 뒤
김창수 참사가 일어나서 나를 흥얼한라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제를 도움
했라. 김창수 참사가 - 내가 한때 성보령님과 같이 일한 사람입니다 -
한마리 - 그때 내가 너무나 기뻐서 그를 안고 팔을 엎고 그 물도 물고 허국봉
선생도 눈물을 흘린다. 지금 그 때 강신을 회상하면서 이 물은 쓰자고 하니
눈시울이 뜨겁다. 그날 김창수 참사가 내게 전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더라

나는 성보령님과 아주 친밀하고 친밀한 일을 했소. 조선의 북쪽에서 남쪽
끌 무살까지 부친기를 날랐소. 친족들이 거리를 치렀던 경찰관을 들여놓은 속을
헤치고 조선의 북쪽에서 남쪽 끝인 부산까지 부친기를 날랐소, 이것은 사상경은
내 건 사람�이 아니고 저는 못 하오. 성보령님은 아주 대단하고 올 뛰는 물이오.
그 헝겊은 이 일을 했어서 못 하겠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었소. 이것이
각 조선해양을 위해 하하는 일이고 정력을 다해야 하고 나를 늘 격려했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소. 3월초에, 파업을 끝내고 냉동방장을 건너오는데
헝겊의 쓴 중절로가 마한에 날려갔다. 그 때 헝겊이 날려가는 둘째 틀을 따라
코면서 하시는 말이, 여보, 참수 이건이 좋지 못한 징조요 하길래 내가 헝겊 보고
아프라, 1열 말들을 간 하시오. 중절로를 자쓰시면 그만이 아닐니까 해도 아주
풀안해 하셨소. 이듬해 이 때 이 성보령님이 두 방장을 건너 쇠련방기 들어쳤소.
그런데 헝겊이 기진 맥진해서 쪼개여 가실라고 숲속에 들어가 앉으신 노인이오.
그 때 파업을 맡은 사람에게 안돈이오면 국경수기 재원들이 미يل 일'군
들이 넘나드는 길을 뚫고 놀고 놀고 놀고 놀고 했소. 그 날 헝겊이 제 시간이 안 들어서 길
내 정미래원들이 ^{정미래원들은} 숲에서 헝겊을 발견 했라오. 아직 숲이 지지 않은
헝겊은 초소에 모셔 갔라오. 그러나 래가 놋여기 등사하셨소 -

내가 이 말을 안 할려다가 광신이 성보 흉내를 아들이라고 하니 말았소.
아들 된 사람의 심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는 어쩔지 할 수 없는 일의
여러 가지로 시오한다.

그 날 김창수 찬사에게서 이 말은 들은 후 문중 속에서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줄지 알 하거나 와 쓰로연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묘를 찾으려 푸학 힘을 썼으나
또 대신 일이라 아무 결과도 못 얻었다.

김창수 한 면 뒤 땀나서 이야기해 보려고 험드나 못 만났라 중앙간행사에
"일이라 가 어디로 갔다고 한라 아마 날조인으로 물었을 것이다.

한 면은 중앙간이에서 일하던 김경애라는 물이나를 찾아왔다. 김경애가
나는 한때 날정보라는 물과 같이 인한 적이 있노. 혹시나 동네 그린 물은
아시는지 - 한다. 내가 그 물이 바로 나의 무친임이라 - 했더니. 김경애가 -
광신 아버지가 탄생국도 어느 한 쪽에서 선물을 갖추기 위해 한약방을 열고
동네의 한녀성과 동거 했노. 그녀성이 아이도 냉았소 - 한다 이것을 가쁜
소식이라. 김경애를 짐 묵시하고 했으나 일이 그럴지 못 했더니. 김경애가 물로는
"아버지가 일하시던 혼에 찾아가 물려고 결심했으나 사상 진호"가 시작되자 나의
계획이라 흘려지고 말았다. 이것은 추리 소설을 많 물게 한다. 지구 이 물을
쓰면서 이런 현상에 잡혀있다. "김 일성 독재가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
다면 내가 동생을 찾을 수도 있었던 라. 지구이 생각에도 흥미로운 독재자의 아들
김정일이 제아비 물을 때처럼 번번이 역암 후살하고 있다 우리는 이 찬사를 수수
방관할 수 있다 무단 오천만 통로를 김정일과 그의 종개들의 발품에서 끄집어
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광신이 아니라 현실이다.

1954년 어느 날 내가 내각 회의에 참가 했더니 그때 각 상들, 국장, 위원장
들이 내각 회의에 의무직으로 참가 했더니 내각 회의에서 휴게된 눈재를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각 회의실이 넓고 깨끗한 편이다 그 날 나는 주석단에서 그리 먼지
않은 자리를 찾이 했더니 내가 대련문들이 참가 했는가 해서 두루 두루 살피고
있었더니 그럴 데 나의 일련에 앉은 문이 도사정 영상 리용상이었다 나는 그 문을
이전에도 보았지만 그려는 데 보지 않았다 오늘에서 리용상을 한 번이 몇 번이나
여겼을 중심여동에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유심히 리용상을 보고 있었던 라. 내가
큰 휴식시간에 리용상을 만나어 물어보기로 했더니.

~~휴식시간~~ 내가 리용상을 찾아가서 - 상동지께 여쭈어 말 쓰이
였습니다 - 하니 리용상 - 무슨 말 쓰이요 말쓰하시오 - 하니 내가 서슴치 않고
- 상동지께서 쓰련에가 계신 일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려니 -

리용상이 그런 일이 있었지 아주 오랜 일이고 그것을 왜 갈라기 놀오한자 내가 상동지 추풍중심여창 이란 혼이 기억 되십니까? 하니 리용상이 가만있노그런 혼이 기억되어 중심여창에 나그물만 아니라 좌중집, 오기집, 허승환 이하 등수 들이 그 혼에 가 있으면서 특집운동을 해보소. —한다 그 때 상동지 우리집네가 께 말씀이라 날정보 전문이 기억되십니까 —하니 리용상이 기억 되고 말고 그 문도 우리와 같이 특집운동을 했소 —한다. 제가 1마로 날정보의 아들님이라 하니 리용상이 나와 악수하면서 —사람의 살아가자면 기이한 일로 많지 이런 좌석에서 천주의 아들을 만나니 찾기쁘오 우리집에 가서 좀 자세히 이야기 하자 —한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 후 리용선생을 여러번 찾아갔자 리용선생의 신체도 많이 잘라

리용선생은 1947년 6월에 화란수도 회고에서 열린 제2차 만국 평화 회의에서 1매를 가른 대국연사 리준의 아들이라 일제가 일등은 칠걸 했을 때 회장을 과 맞서 싸운 분이라 그런 데 깊은 일성이 ..사상집호" 당시에 재판도 없이 리용선생을 속형했다 력사는 어느 때나 살아온다 깊은 일성이 이런 반행이 인민의 심판을 맡을 운명이다

오 기침 선생도 많았라 내가 그 선생을 만나 30년전이 선생이 중심창 우리집에 와 계셨라고 하니 너무나 많개수량해여 나를 도움하고 무신 일도 있었라고 기침 선생도 ..사상집호" 당시에 엮여지고 많았라

한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련대사관 제1차관 편리도브가 누를 오라고 한라 그래서 찾아가니 편리도브가 나보고 —동무가 왜 자금 까지 국정을 아끼지 않고 있소 —한다 내가 —국정을 아끼는 뿐제가 아주 심증한 문제이나 품생각해보겠습니까 —하니 편리도브가 —생각해 볼 것 있소, 동무가 놓으로 일하자면 공인증은 마주이아하오. 한라 내가 —나는 소련공인증은 자른 나와 공인증과 나마는 생각이 엇슴구나 —하고 거절로였다 외숙상 남일이도 나와 공인증을 깔리고 화하고 원인이 있다 놀통 북조선 정씨가 만화하고 면주화길로 나갔다면 나도 공인증을 아끼어 가지고 북한 사회 건설에 뜯든 마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은 깊은 일성이 쏘련공인증을 북한공인증으로 아끼게하고 쏘련서온 간부들은 으로로 청산하자 는 것이 1950년대 회막을 쓰고 대리 출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제역 며슬이 따까워서 공인증을 고한한라. 이것은 끓을 서치 드 끓 내다보는 어리석은 일이다 보라. 공인증은 아픈 사람들이 제작되어서 일하고 있는가!

이상에서 말하자 가 많았던 "사상 절을"을 마무리하고 한자
내지 대한 "사상 절을"가 형식적으로는 끌어간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사상
절을"이 암암리에서 진행 됐다 나의 일거일동을 되어가며 면밀히 살피자
작чин들과 고체화하기 점점 어려워졌다 내가 "사상 절을"을 말았던 그로
온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무시되서 슬슬 미한다 그럴까 친하게 일하던
부장들 까지도 나와 만나는 것은 참가한자 이것도 내가 "사상 절을"을 말하던
그대로 알려주시면서 무시하라 이런 몸의 기속에서 파악 일을 계속 할 수 있겠
는가! 그리고 또 내가 "사상 절을"의 실세를 흑혹리 임했다 신경쇠약인지,
무엇인지를 1명이 걸치고 속상증과 수면증이 실제로는 토자의 일할 수 있었가
정부 1명원에서 치료를 알았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1958년 5월 초에, 내가 1명이나서 일을 더 할 수 없으니 나를 쓰련으로
보내 달라고 내각사무국에 청원을 냈더니 한 번은 중앙란에서 1악 금철이
나를 끌어온다 '악 금철이 나보고 - 왜 쓰련으로 가자고 하오 라가고 누가
알리겠소, 물쓰고마이치로하여 보내 주겠소 - 한다 나는 사실 쓰련에
와 치료를 말도 일도 없으나는 끓는 아프거나의 일할 환경이 못 태서
쓰련에 갈 것을 결심했다 6월초에 나의 청원이 접수 됐다 사실 나는
기억과 러브 차이를 뺀다 남들은 쓰련에 돌아온 뒤 가만히 여객석
가자고 왔라하지만 내끼는 그런 거의 없었다 내가 쓰련으로 간다는 소문은
듣고 나와 아주 친한 친구 김광이 나를 찾아 왔라 그때 김광이 "여성
무상이 있다 김광이 나보고 - 아침 일찍해 놔라, 일하려 왔다가
어떻게 중도에 간단 말이냐, 끌을 물어야 한다"라 - 한다 그래서 내가
- 이제 보니 너가 파연 끓을 한치도 못 보는 암울한 아람의 구나 우리주위
에서 무슨 일이 일어지고 있는 것을 네가 웃 보느냐, 볼 장은 각 봤라 살고
싶으면 물 따라리를 쌔라 - 하니 김광이 - 좀 완화해 지겠지 - 한다
내가 - 친한 친구의 충고를 듣어와 안을 드린 후 칙침 때가 있을 거라 -
느꼈라. 서로 갈라진 이후 김광의 소식은 알아 볼리고 했느냐 알지 못
하고 말았다 전하는 말이의 차면 행 1만 물건이 태라고 한다

어느 날 저녁에 최철환의 전화를 걸자 그때 최철환의 내각
사무국장이었다 그의 집은 해안산 일에 있는 열대 우림집에서 멀지
않아 내가 최철환을 찾았고자 최철환의 훈자였다. ~~최철환의
차와 아들을 쓰련으로 빠져나왔다.~~

내가 - 나를 가는 사람인데 나를 만나서 좋겠소 - 하니

하니 철환이 - 나는 뭘 봐 죽은 사람이 오길 날 것 없소. 불식이 잘 생각했을 때
여기로 떠나야 하오. 한 잔식을면서 이 이야기까지 듣고 간다 - 그 날 저녁에
회철환의 주로 깊은 만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김창만은 포악무도한 큰 아첨쟁이라 불내 김창만은 남북에서 알려진 미지주아들이나 김일성이 그에게 자리를 대여주었라 한자 이래지주가 김일성에게 돈을 살길 것은 혁명성이나 애국심이 있어 그런 것이라고 말할찌산들이 지주들을 습격하는 것을 막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김창만은 제아비 력학으로 물은 머슬에 등을 알 수 있던 호지개혁 때 각 지주들은 대청산 됐는데 김창만 애기는 청산은커녕 오히려 려질 살게 으로 각 아군의 흑색을 멀고 통번들을 깔보고 혐박했라 그러나 농민들이 겁나서 한마리를 말도 못 했라 김창만이 중앙장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죄원는 사람들을 김일성 제 고자 징을 했라 김창만은 특히 살련시온 간부들을 마부하고 살해했라 마를 래로 말하면 김창만 중앙장에 앉아서 관사임에 끌돌한 것 보단 간부들을 잡는 데 더 끌돌했라 우리 등지들의 뇌가 김창만의 손에서 흐르고 있다 김창만의 죄는 아주 엄중하라 일민의 살판을 맡은 날이 ~~없는~~ 만드시 오고야 말것이리”

최철환은 말을 라 해고 나서 나보고 봉식이 간 라고 하니 이런 말은 하늘 이들의 세상이 어찌된 판이지 제 동무들과도 속에 있는 말은 못하게 돼 있노. — 하여서 한 술을 내쉰다. 그러나 기쁜 떡얼굴에 최철환을 만나 놓으면 일사를 했던 그때 최철환이, 사상걸로 "땅에 걸려 못 매질 줄 이루 알고 자기 치와 아들을 노련으로 몰았다.

길창연이 말이나 온길에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지. 길창연이 선전무장으로
있을 때 일이라 길창연이 나와 아무 말도 없이 1만 솔 향찰단을 ~~죽임~~^{죽임} 주방에
넘겨 주었다 내가 사실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무악무장이 내 1만이
들어와서 - 중앙단 선전무장이 우리 향찰단을 ~~죽임~~^{죽임} 주방에 넘겨주었습니까 -
한다 그래서 내가 - 그럴 수 있겠소. 내일 선전무장을 찾아 가겠소 - 했더
이튿날 선전무장실로 갔다. 길창연의 미서가 무장실에 들어가 암송이원
회의원장이 높았다고 모은 헌자 - 길창연은 고의적으로 나를 미서실에서 ~~간파하~~^{간파하},
기라리게 했던 나를 들어 오라고 한자 내가 들어 갔는데 나와 인사도 안하고
앉으라는 말도 없이 책상에 쓰고 앉아 이를 물는 책 사는 책 한자 재료이를
가지고 ~~길창연~~^{길창연}의 골통을 죽이고 살았더라 한참이라가 무장동지 앉아도
좋겠습니까 하니 앉으라고 한다

길 창밖 나보고 — 무슨 일에 봤노어서 말하오 — 했라 그래서 내가 대도적임
직임직으로 — 무장 등지, 저와 아무 습관의 일이 망동합창단을 국립극장에 보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야 사람이 예술이 뭘어서 떠나 일할 수 있겠습니까.
무장 등지의 지시를 취소해 주십시오 — 하니 길 창밖이 —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일의
옆소 — 했라 내가 — 예 알았습니다 아파하루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한 말 같습니까
하고 무장실에서 나왔다. 그 후 망동합창단이 제자리에서 일하게 됐다
길 창밖을 큰 관료주의자다 웃 사람에게는 아무리하고 하루 사람을 열쇠한다
그 뒤 내가 속으로 „저런 관료주의자가 어려울 중앙당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
하길 당간부들이 라 관료라.

내가 러나 기전 이틀 전에 최종학이 악한 데 전화를 걸라 데리고
저녁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다. 최종학은 내가 어려서 무리 아는 철구라 소학교
에서 같이 공부했라며 최종학은 마음이 우수롭고 등지에 가깝고 견손하고
말이 꼭검고 책인성이 강한 사람이라 쓰일 전쟁의 첫 날부터 조선해양전에
참가한 한 사람이다.

저녁에 데리고 와 같이 최종학의 집에 앉다. 집에는 두 무부 ^여문이고 아이들은
여덟 살 간보양이다. 종동하라. 내가 종학을 보고 — 우리와서 좋겠니, 밀성이
있겠니 — 하니 종학이 — 걱정할 것 없라 이제는 나는 라 될 사람이다, 검을
걸 빼라 — 했라. 내가 — 그래도 너는 여기서 일할 사람 아니니, 주의를 해야
하지, 내 ^여집으로 들어온 데 내 뒤를 살피는가 봐서 살펴봤라. 살피는
느낌이 엉려라 — 했라 종학이 — 하긴 무리집을 살필라.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물안스럽다. 사람이 이런 복마전 속에서 어찌 오래 살 수 있겠니. “이만 되죽어야
하지 한다 — 그래서 내가 종학을 대안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잠깐
날이 올 것이다.

종학이 나보고 — 그래 어느 날 러나느냐? — 하고 물는다. 그래서 내가 — 뜨리
데려온 라고 — 했라 그 날 저녁에 종학이 ^{상상 걸로} “잘려 실물 이야기를 한 후
종학이 자기 이야기를 이런 말로 시작한다. 너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 말 뜻만
한 가지 말 뜻하겠라. ^{상상 걸로} “이 첫 날이라 중앙당 회의실에서 군관
회의가 열렸다. 미회의에 약 300 명 준관이 참가했다. 주석단에는
길 열쌍, 최용건, 길 창밖 기타 놀고한 사람들은 있었던 회의의 장이.
나보고 사업보고를 하라고 했라. 나는 이런 줄 알고 보고를 준비 했라
내가 열린 데 내가 보고를 시작하자고 하는데 최용건이 한글판을
읊어 경령한다. 저놈 (나를 끌어가고 했라) 의 전장을 끄적이다.

그러자 대의한 사람이 일어나려들어 내께서 사정없이 결정을 완작
잡아 떠나 최용건이 무력으로 상을 치면서도 제복을 갖장 멎으라고 명령
한다 내가 제복을 멎고 장승처럼 땅과 나서 일어나니 여건이야 말로 산장
식의라 떠날까까지 끼지 짜지 한 행동은 암울하게 하라고 줄에선 생각을
했고 깊은 깊은 이장면을 물면서 아주 만족한 듯이 하루하루는 최용건이
나보고 주석간에서 간장 물려가라고 훈령한다

나는 단번에 충청체국장이라 대장이라 최고 인민 삶 일의원회가 아래장의
군사창호를 정령으로 수여해 그려므로 최고상임위원회에는 다른 어려운
사람도 나의 군사창호를 막할 줄 알리가 없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최용건은
정령을 것 많고 제마을로 나의 군사창호를 권관치이어서 '막할'로
여전 무영원지가 뜨어지지 않다가 천연기로 활약이라 이 자를 지는 멈이
없고 자기이하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하리 광주한라 이런 사령자들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정의는 어느 때나 손과 하는 멈이다 내가 좀 능숙한
너무나 원통하고 격문해서 너와 하는 말이라 여기에는 험여 높고 낮은
사람이 없다 다른 제살 ~~중~~ 구역 깐하고 있다

거북이 빛나니 종학이와 포옹하고 한참을 엎고 하직 암자든 하고 험에
왔다 듣으니 최종학이 이런 호록과 한대를 맡고 평에 걸터세상을
쳐난하고 있다

5월 2일에 내가 간단하고 활동의 원회에서 송연연은 차렸자 송연연이
중앙당 선전부장과 일경이 참석했다 차리 일정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게 깊은 찬사를 헌쳤다 나도 간단한 차를 헌쳤다 누군가 연회식에서
여전 생을 험하고 "사상검호"에서 나를 한동으로 몰라가 내가 간하고
하니 송연연도 차리자니 뜻 속은 회죽은 꾸미지나 안는가 해서 조마
조마그렸다"

1958년 6월 1일에 내가 속둘를 데리고 현 양역에 나왔더니 전송하는
사람은 멀로 없었고 멀리 많아서 안전원들이 누가 나를 전송하는가 살피고
있었다 이런 판에 누가 나를 전송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한 기차가 서평양
역에 와 있다 나의 꼭장들이 나를 차해우리 우물과 내 손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차원 몇 명이 결드로 뜻하고 현양에서 손만에 흔들라
기차가 철수히 떠난다 아래로 떠나왔던 사람들은 기차가 살아질 때
까지 솔수진을 머물렀다

“도망아이에 잘있거라, 한때 해방자의 만세를 둘어 와치 런 레아 브리 오늘은
이렇게 우울하고 냉정하니” 나는 그때 달가는 차창을 내려보면서 이런
생각에 잠겼다 어느새 차가 신의주역에 와 닿았라 씨관이 손객들의
진을 걸쳤던 차에 차였다. 한 씨관이 나를 보고 – 위원장동지 아니십니까?
왜 아주 가심이까 – 한다 내가 – 몸에 10명이나서 가오 – 했지. 한 씨관이
나 보고 선생님의 질이 이것임니까. 그저 흥과 하심으로 – 한다 – 내가 그
씨관을 보고 – 감사하오 – 하고 줄박한 선물이었고 해서 향수한 1명은
그 씨관에게 주니 감사히 잘는다 씨관 사람들이 도련안이 가지고 있자 한다
차가 압록강 철교를 천천히 넘어 중국당에 들어선다. 내 한 열차가 민주의
쓸쓸한 황야를 달리다가 드디여 치과에 다달랐다 쏘련당이라 시름이
꽉놓인다. 몇 일 후에 열차가 모스크바에 들어선다.

길이노꼬꼬찌 마하이노미츠, 조동규, 우싸또브(모스크바 외국어 간송국 주필)가 하
는 말을 이어받아 길이, 미. 가 우라를 자기 집으로 안내한다. 이노꼬꼬찌는
죽풍 ~~여자~~ 끌싸까까에서 서로 친하게 산수란이라 이집에서 거이 할말이나
살았다.

몬쓰코마에 온지 사흘만에 쇼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동양무부장 잠시니 나를
만나자고 한다. 약속한 시간에 중앙 ~~위원회~~^당에 가니 10월 5일 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나를 무장실로 안내한다 무장실에 들어서니 잠시니
부장이 일어서서 나와 악수한다 자리에 앉으라고 한다 잠시니 나하고
- 건강이 어떤가? 하고 물으니 내가 - 건강이 그닥지 꿃 했니라 알슬이라 - 헬라
식술이 많소하니 - 빠져지여 것 심니라 - 미리로 가겠소? 나는 원동에서 차한
차할 임니라, 하니 아름스코에 본 대주심이오 - 헬라 잠시니 이 문제들을 수첩에
적으라. 잠시니 내끼 물은 마지막 문제를 그대로 말하자니 잠시니 나보고
- 동무는 깊일성이 어떤인물이라고 묻오 - 한다 그때 내가, 중앙당
동양무장이 깊일성이 누군지 물으니 하니 물을 수 없다 이건은 나의 속설을
여보려는 수작이라 줄풀래 했라. 그러나 차려나 중앙관무장과 의미를
캐힐오는 암자그리서 내가 열생각암이 차짜고자로 - 깊일성은 흥포
한 득재자임니라 - 하니 잠시니 눈이 뚱그래서 - 동무 그게 무슨 소리오 -
한다. 내가 - 무장 등지 나보고 나의 결해를 말하라고 하니 나의 결해를
말 했는데 그려 놀랄 것 없습니까 - 하니 잠시니 - 말은 좀 무의하시오 -
한다 담화가 끝났라 잠시니 조어쪽짜를 쪽 죽내게 주면서 이쪽짜를
가지고 중앙관 10명원에 가서 차를 차라고 그리고 ~~쪽짜를 죽여주면서~~ ~~쪽짜를 죽여주면서~~ ~~쪽짜를 죽여주면서~~

50

주께서 만월적십자에 가서 보조금을 ~~만드는~~ ^{나는} 무장을 입고
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무장이 한 사람을 물려 이동수를 운전 임무까지
맡아 하라고 한다.

지역에 어느 깬지 지역을 벽으로면서 내가 중앙당이 가서 갑화한내음을
물어본다며 내가 김일성을 힘도한 독재자라고 무장에게 ~~말해~~ ^{나는} 다
하니 어느 깬지가 잠시나 빠여라고 할려니까 한라 내가 빠여라고 할지
있소, 그게 말을 끝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느 깬지. 이전에 그런 말을 했던가운
출장이고 재한도 말을 수 있습니까 한다.

잠시나 불령을 꿀리고보다 이아름을 가지고 시울에 있는 황제로시야 혼다
관을 지키다가 갑침으로 놀려 죽을까 쪽였다. 평양에 와온마 있다가
쓰쓰카이 와서 불령을 갈취고 잠시나라는 이름으로 중앙당에서 일한라
잠시나에 대한 북조선에서 돌아온 유태동수들의 평叛이 아주 내이었다
이런 대표적인 실례가 있다 농엄성 무상 리용석이 쓰쓰카이에 왔을
때 잠시나를 만나, 나는 다시 북조선으로 놀 가겠라고 하니 잠시나 리용석은
실복 시켜 북조선으로 도로 보내 일이 있다 리용석의 처 안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잠시나를 찾아갔다. 안나가 잠시나를 보고 - 강신이 나의 날련을
북조선으로 보냈으니 도로 물러오시오 그에게는 아이들이 있소 - 하니 잠시나
경속하게 - 이강원이 중앙당에 와서 어찌 뛰는 아지오 - 놀라 그려자
안나가 너무나 적금래여서 잠시나를 보고 - 이강원은 중앙당에 와서
자기 애로를 말할 수 있는가, 중앙당은 맥상을 들보아 안주는가 - 하고
잠시나에게 대들었다 그때 잠시나 훌쩍 날라.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소문이 짜자 하지 떠졌다. 뜻뜻 동수들이, 잠시나 중앙당에서 일한
자격이 떴다하고 중앙당 간부들에게 편지를 쓴 일이 있다 그래서인지
중앙당에서 나와 뒤고슬라 이아 대사로 가 있었던라

쓰쓰카이에 와 있는 동안 내 혼자 "극성조향"에 갔다 왔다. 이조향에
여러나도, 이산 누우물가 있고 여동생 마리아가 살고 있던라. "극성조향"
의 원장 이중영은 깊이 명화가 나의 오랜 친구다. 재회가 우에 있을 때
깊이 명화가 골탕 ~~나는~~ ^{나의} 소년란원이 었다. 내가 이조향을
찾아가니 나와 같이 일하던 동수들이 빼어 기꺼이 한라 와서 일을 같이
하자고 한라 깊이 명화가가 끝고 - 봄식이 멀라든 생각을 알고 식논문을
레리고 오오, 러는 블라도 한해동안을 쉬면서 1경도치를 할 수 있소
정양소도 모내걸소"한라 내가 명화를고 - 나는 멀5의 좌경증을

발았소 의사들이 누를 러운지찌로 가지 말라고 하오 암만 오고 싶어도 사정이 허락치 않소. "극성 꼴호즈"에 가셨을 때 여러가운데 이산누우 수라의 표를 찾아가서 꼴보이 술한자식 무이 축와라 여러가지로 알아서 산재 달난을 다 겪으신 여러가지 일생을 회상했다.

열세 해동안에 삼년이면 간산이 1년한다고 꼴호즈의 연보가 무시 1년 했고 전에 있던 려관, 려스흐관, 전화국, ~~전화국~~, 명원, 막돌관, 현대적 기제수리소가 열려섰라, 이조참이 쟁 30여명에 걸라는 조례 땅움들이 일되고 있다 려객 10여명이 꼴호즈 꾸밀류크를 왕래하고 있다 이 꼴호즈 광화국에서 이른는 꼴호즈다 외국 손님들이 이조참으로 자주 찾아온다.

내가 "극성 꼴호즈"에 가 있는 동안 깊이 명화사책을 자주 암문는다. 내가 한연을, 깊이 명화의 짐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라. 다른 ~~꺼~~ 꼴호즈회장들은 아주 어진 이사는데 왜 이렇게 주차이사오 하니 명화가 내가 왜 주차이사란 말이오 먹고 임을 것인가 있소. 잘사는 꼴호즈 회장들이 라 도둑들은 이오. 꼴호즈 회장도 뒷걸은 말고 사오 그 옆을을 맘아 가지고 서야 빠져 그런 호화를 살 수 있소.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오 한다.

꼴호즈 집행부 위원들과 나의 동무들이 저녁을 차려서 저녁식사에 한 30여명 가량 모였는데 식상이 참을 만만진수다. 깊이 명화가 저녁을 먹느라면서 나와 이런 말을 했라. 본식이, 이 저녁을 차려는 데 꼴호즈 돈은 한푼도 안들었소 동무들이 눈과 차린것이오. 양도 다른 꼴호즈에 가 사왔소 그려가가 꼴호즈는 이 꼴호즈 양이라고 할가봐, 그러니 빠져와 하지 말고 많이 가시오 한라 나오 간간한 감사를 해온다 일이 가끔 려 나를 위해 저녁을 차려서 반감소. 이 몇간도 ~~예전~~ 동무들이 옛정을 만 엮은것이 더욱 만감소. ~~마을~~ 이전에 와보니 꼴호즈 같은 말질을 했소. 이것은 이 좌석이 앉은 명화를 미루 한 여러동무들의 치의와 정력과 꼴호즈의 드라마와 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 보. 늘 강 건강한 몸으로 ~~인화~~ 활장하자오. 그 꼴호즈 전설에서 많은 경리를 걸었디오

내가 꼴호즈 그려나는 날 저녁에 명화와 라를 깊은 동무들이 이행한 까지 나른 전송했다. 모스크바에 와서 해아름스크 해외 1만승국에 가 명화하는 중앙간 소개서를 가지고 8월 15일에 모스크바를 떠나 해아름스크에 왔라 이래 해아름스크 해외 1만승국에서 나의 친구 윤상희가 일해온다. 물사에 라를 려고 해서 윤상희 집에서

살았라 봄 상황의 짐이 너무 예쁘고 식솔이 많아서 오래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망동국회의실의 한 구석을 찾아온라 살았라 1월에 가을이라 추워서
 식솔들이 심한 고생을 했라 내가 하마うま스코로 올때 잠시나 주택문제가
 해결 됐드니 걱정 말고 가라든건의 한 달이 돼도 아무 말 없다 그래서
 잠시나 이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나이 그럴수 있겠는가 내가 1년간 광장에서
 어끼지지를 주었는데 한다. 이런 말화가 있을 이후 사흘 만에 면회장에서
 흐르기가 나를 오라고 한라 약속 한 시간에 흐르기를 만났다. 흐르기가
 - 내가 듣는 주택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고 시쓰미즈 위원장 브드가 예브
 에 쪼개 말했으니 거기가 보오한라 그래서 브드가 예브를 찾아가니
 나를 시쓰미즈 부위원장 꼬루수도브를 만나라고 한다. 나는 그때 앓는
 사람이다. 관료주의가 시작되는구나하고 끌어 사나운 자주천들이
 미간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시쓰미즈 위원장의 지시에 부위원장 꼬루수도브를
 찾아갈라 말을 온갖들이 차례로 서 있다. 나는 모르 척하고 차례없이 꼬루수도브
 카미네드로 들이 간라. 꼬루수도브라는 사람은 얼른 보아도 생김새가 관료주의
 자라. 나를 묻는 척 하느라 한라 연사도 없고 알드리는 말도 안 한다. 꼬루수도브가
 나보고 꼬리도 끌도 없이 - 일련 데루 흐름 안 가고 돼 하마うま스코로 왔소 -하고
 아니 끔끼 말한라 아파 의사람이 어디서 굴러온 아주간으로 알고 있는 모양
 이다. 내가 -하마うま스코로 가라고 하니 왔소 -하고 끌고내리기 대답한라
 꼬루수도브가 - 지금 하마うま스코가 주택 문제를 겪고 있소. -한다 그래서
 내가 - 좋소. 내가 불래 있던 곳으로 가겠소. 여기에 주택이 있는지는 몰랐을
 주오 - 했라. 나는 속으로 "내가 살부터 지지를 간장을 줄 나를 앓다
 앓면서 관료주의를 무려도 결국 나에게 주택을 주고야 말것이리"
 내가 한참 있다가 - 돼 글을 쓰겠소. 당신이 큰 관료주의자오. 나는
 아주 먼 이 아니오 광장 소재로 이사로 왔소"하고 일어서 나를 떠나니
 꼬루수도브가 - 좀 왔드시오. 그렇게 성 벌 것 없소. 내가 뒷서로 징을
 일것으니 가겠소한라. 내가 이사로 올때 모쓰코야 등록들이 봉식이
 하마うま스코 가지 련 뒷서로 주는 주택이 들지 않아 말이 뒷서 들면 그 뜻이 옥
 하 련 말이 생각된다 그래서 내가 꼬루수도브를 물고 나는 뒷서
 주택으로 갈 생각이 없는 하니 꼬루수도브가 그러는걸 기다리시오
 한다. 어떤 말이 있는 이후 몇률 만에 시 주택 관리국 국장이 나를 오라고
 한다. 그가 나보고 - 새 주택이 있소, 좋 머오 -한다 내가 - 그것은
 관계 없소 주택이 밖을 데 듣기겠소 -하니 국장이 - 그러면

지금 가 보게요 - 한자 봐서보니 새로 건설한 주택이라 마음에 들었라
 일차 의사였던 라 의사는 했으나 가구가 전혀 없었던 라 돈이 없어서 가구를
 살 형편이 ~~못되~~ ^{못되}었다. 그래서 '암송국책인자'라고 내사정을 말하여 절식으로
 가구를 '밀려온다 어제는 징도 있고 가구도 있고 하니 생활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식구들을 놓여 살려야 하겠으니까 일을 해야 했던 그럴 데 몸이
 그 냥 아프라 신청의 약 때문에 몸과 손이 려이고 숨을 면등이 많하고 기억
 력이 있다 식지도 않았던 그때 나는 아마 내가 죽는가 했다. 할 수 없이
 의사로 찾아갔다. 의사가 나를 오래 진단하더니 - 당시 뼈 쿠명은
 암소, 영양부족이오. 그때 몸이 솔이 떨리고 잠이 안 오는, 영양가치를 높이
 하여 하오. 당분간 정신로동을 하지 마오. 만연히 약은 없는 '멍이오. 건강이
 당신 자신에 알려드려면서 전신 맹수마찰을 하라는 것이다. 의사가
 지시한 약을 마시는 한편 맹수마찰을 시작 했라. 하루 10마진 암이 악침
 암풀이 맹수마찰을 한 달동안 계속 했라 그랬더니 호파가 있다 우연
 솔이 떨리고 식이가 돌아서고 기억력도 나사진다. 맹수마찰을 계속 했던
 하긴 지금까지도 충분히 맹수마찰을 한 라 전기성이 절차적으로 회복 했라
 한적원이 나보고 - 우리는 그때 선생의 사상이 휘둘러지고 냄새
 헛보는거라 - 한자. 이것은 사실이다. 사상검호의 '역학'을 속속이
 엮었라 죽자가 살아났다. 낙심 말고 1명과 꾸준히 싸운다면 1명을
 이겨 낼 수 있음을 것은 나는 알고 있다.

하나마루스코 '암송국'에서 거이 열리셨거나 열렸던 라 이동안에 고정원,
 주필로 있으면서 직원들과 친하게 지웠라. 라 그런 것은 아니라 노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라. 몇 가지 실례를 드린다 조선시대에서 장길성
 이라는 한역원이 일 했던 푸교성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 한역을 하다가
 자기 한역술이 ~~악화되는걸~~ ^{잘하는걸} 생각하고 개색끼(필자를 놀렸다) 라고 원고를
 잘 각 짚어서 수지통에 징어련진라 그럴 데 이상한 것은 1만 수잔들이
 이것을 보면서도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루는 장길성이 편역을 하다가
 또 개색끼하고 원고를 짚어서 수지통에 쓸어 넣는다 내가 찾지 못해서
 장길성을 보고 - 이것이 첫 번이라면 볼라도 1번 1번이 원고를 짚어 ^(여기면서)
 필자를 개색끼가 아니하고 유통하고 그게 여기서 깨운 핸사요, 장신은
 이상도 모르고 - 하니 장길성이 한참 말없이 있다가 - 내 잘 못 했습니까
 뿐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 그한자 이런 일이 일자 몇을 후에
 읊상 (우리는 서로 선생이라고 했던가) 이 나보고 - 선생이 일은 가지

시작 했는데 좀 찾으시지 않고 1번 역원을 묻고 어릴라 저 멀리 말하심니까—
한라. 나는 물 살뜰이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 했고—그래서 내가
— 물 선생,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그래 잘 길성이 누리었어서 1번이 원고
지를 찢어 팽개 치면서 필자를 욕하는 것이 물라는 말씀입니다. 선생이
사람들 물의 머리를 잘 물 줄 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나—하여 물 살뜰이—그 사람들이 자술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면
1양 송이 뜻 나갈 것 아닙니까—한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끌을 저려 밀
필요는 없습니다—그쳤다. 이후 잘 길성이 물을 행사를 벌였고 24시간
내로 복조선으로 쫓겨갔다.

내가 1양 송국에서 일할 때 „원동에서의 쇠에르 주전수령을 위한 고려
국제 주의자들의 희생“의 필자인 김 마드웨이 짜도데예카초가 휴재처로
와서 우리집에 주일 일을 왔다. 나는 이 선생과 만면이 엎다 모쓰 키아 드구드
마드웨이 선생이 이 시로 온 때 나를 만나라고 그 선생에게 전고했다.
마드웨이는 쓰 달린 서래 래브라지 보스로 광학고고학으로 있다가
장례가 거기 같은 생활은 영원 이상이나 한 문이다.

마드웨이가 나보고 김승민 선생을 만나라고 한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날 선생을 묻고 김승민 선생 책을 찾아갔다 승민 선생이 마드웨이 선생을
‘안감제’ 맞아들인다 두문간에 만면은 엎고 소문때 들고 아는 노량이—
김승민 선생이 마드웨이 선생이 오셨라고 점심을 차렸다. 승민 선생이
손님을 위해 술잔을 두다 마드웨이 누는 술을 뜯어사모하고 아주 거칠한가
그래서 승민 선생이 한 자이에스를 들겠소. 마도웨이가 사망하자.
승민 선생의 얼굴을 살피니 무색하다. 점심을 끌내기 두문이 서로 와사를
말한라 그린데 이경이 상관해서 서로 독신각선한라 승민 선생이 마드웨이
불고—양신 골속이 아직까지도 당파싸운 고질이 남아있소—한라 내가 물어
하니 두문을 끌리고 말걸 같아 그래서 마도웨이 선생을 묻고—선생이
승민 선생을 꼭 만나시자고 하길래 선생을 놓이고 왔는데 서로 독신각선해
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하실려면 부안의 자리를 임십라—하니 승민 선생이
—마드웨이는 내 손님인데 내가 그래서 아스피리겠소. 그만 끌는 시라—한라
마드웨이를 데리고 승민 선생 책을 나왔다. 내가 1연주 때 찾았던 것은
없고 해서 점심에 국수를 만들었더니 마드웨이가 나는 퍼기정 때 놀에
국수를 뜯먹소. 맘에 차를 주도한다. 이시에 김 유천거리가 있라는 걸은
이 선생이 알고 있었다. 선생님, 이를이 잘 못 채서 김 유천거리라고 늘리고
불내, 김 유경입니다 중심찬 사람입니다 저보다 이산남이라 김 유경이

55

창년 때 글도를 차고 말을 하고 만나던 일의 지금도 활동 나를 향해 그 선생이 그 자리의 이름을 아름답아야 하지하고 ~~여론~~ 쇠메츠로 갈이 가지고 나를 조른다 시쓰메츠에 가서 고문서를 들추어 보니 참말 깊숙천이 아니라 깊숙경으로 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쓰메츠 위원장을 만나 이 사실을 물어보니 자리의 이름을 고치자고 하니 위원장의 말이 자리 이름을 고치자면 말은 듯이 드는데 그런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서면들이 깊숙천 자리라고 무르고 있는데 그만두자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깊숙천 자리라고 무르고 있다. 향토 막물관 기도 그 선생과 같이 갔다 왔다 그 선생이 그때 막물관을 돌아보고 막물관관장은 보고 - 우리 고려사람들이 맥여년 이상 운동에 와서는 데 왜 고려사람 구석이 없소 - 하니 관장이 - 높으므로 고려 사람 구석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향토 막물관에 고려사람 구석이 없다. 마르웨이 선생이 나설고 이런 말도 한대 리준님 말에 따라니깐 강신부친이 흑풀 ~~기생~~ 말편 사업은 했라고하는데 구친에게 대한 글을 쓰오. 내가, 내가 쓴 책을 재판 하겠소 그때 강신부친에게 대한 기사를 네온것도 한다. 내가 아어지 ~~화~~ 말리산에 만나 신 기사를 사진과 함께 보냈으나 마르웨이 선생이 사망한 기이) 그 책이 재판을 쳤다. 내가 길마르웨이 지도에 이어 이 선생과 자작 도련자연 막돌 했라. 나도 그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

세월을 쉬지 않고 흐른다 멀티년을 사는 활로 나갈 때가 돌아온다 지금은 간부과에서 년금수속을 다해 주지만 그때는 자신이 년금수속을 한다 년금 수속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 삶을 나에게 말은 절차를 갚아야 한다. 내가 년금을 수속하자고 중구역 사회보장 무장실을 찾다 갔다 무장실로 들어가니 훈장과 배달을 알 가능성이 많이 대한 철준이 앉아 있다. 내-그 사람 앞에 내가 가지고 간 자식전을 내놓았다. 무전이 내 자식전을 주심스레 읽는다. 그러다가 ~~내 자식을 끌어놓기 부탁~~ - 동부의 자식전을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지역 사회보장실 무전에서 해설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소. 동부가 중앙간 미씨국에 이자식전을 보내오 동부는 물론 년금이 아니라 살으면 깨어 멀년금을 받을 만하도록 한다.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와 나의 자식전이 청원을 첨부해서 쓰면 공산당 중앙위원회 미씨국으로 보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라가 한 달이 흘러나서 10년간 끊임 조직 무장 스민후크가 나를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한대 전한 시간에 그를 찾아 갓자 무장이 일어서서 나를 한감하게 인사하고 나를 앉으라고 한대 무장이 - 동부가 년금 문제 때문에 중앙간 미씨국이 청원을 넣었어

있습니까 - 한다 그때서 내가 -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 하니부장이 -
 내가 회장을 맡았습니다, 듣는가 쓰려면 개별년금생입니다. 그리고 나와
 악수한다. 부장이나 보고 연강사회보장부에 가서 개별년금증을 말으라고
 한다. 내가 연강사회보장부 수장실에 와서 개별년금증을 맡았다. 개별
 년금에 세가지가 있다 쓰려면 개별년금, 광화국개별년금, 지방개별년금
 이다. 쓰려면 개별년금생은 주택료 50%, 일련이란 면적 주로 정양소
 치로, 약물가의 20%, 도시면수수단부를 이용, 일련 일회식 쓰려면은 주로
 토지지상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해마다 스마트폰 정양소로 간다
 스마트폰까지 쓰려면에서 유명한 악수지대다. 여기에 "중앙광정양소",
 "직업동맹 정양소", "근현정양소" 세 정양소가 있다. 내가 처음
 스마트폰 정양소에 가서 보고 느낀것을 대충 말하겠다. 이상에서
 말한 마와 같이 여기에 세가지 정양소가 있다. "중앙광정양소"와
 "직업동맹 정양소"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앙광정양소"는
 건물을 참으로 출입하라고 아는 암다. 7층건물이다. 주리를 계단으로
 둘러 짹고 입구에 모호 짹이 있다. 이모호 짹이어서 "중앙광정양소"에서
 흑양하는 사람들은 맨 흥과 사친다. 그 외에 다른 흑양생들도 들어갈
 권리가 있다. "직업동맹 정양소"는 4층으로 돼 있는데 모호한
 없는 건물이다 여기에는 보호도 없고 울하리도 없다. 우상출입이다. 나는
 이 두건물을 지나고 대 보면서 이런간을 느꼈다. 광파인민 사이에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을수 있겠는가. 광파인민은 일체하고 밀리지
 않는다. 이것은 연행상안이다. 나는 양신이 되어 된 사람아 아니라 아건을
 보기 부끄럽다. 나중이 아니라 여기와 흑양하는 모든 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중앙광정양소"에서는 랑만들이 흑양하고, 일은 "직업
 동맹 정양소"에서는 상들을 이 흑양하고 일하고 드릴한다. 나는 "중앙광
 정양소", "직업동맹 정양소"에서도 흑양한 일이 일기어 주 정양소의
 내부시설과 식사사이를 잘 안다. "중앙광정양소"에 들어서면 눈이
 번쩍 띠운다. 모든 텐트시설이 알뜰하게 있다 어리나 주안으로 걸린다.
 흐실에는 샤워, 전화, 헤드미존, 알약의 자판이 있다. 뒤는 사람들의 말에 이어진
 니 안에서도 차연이 뛰라고 한다. 식사는, 로동자를 정양소의 식사에
 하면 훨씬 좋다. 여기 식탁에는 각종여관, 레이, 머섯 그릇이 걸어오른다.
 로동자들의 식탁에서 어떤 것을 볼수 있다 여기에서 300여명이 점양
 하는데 이만한 수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점양하는 한 사람에게
 시중을 한 사람식 물려 뿐이 있는 것이다. 어디로 모던지 차별 대우다

상이

이렇게 하면서도 오래 견딜 수 있겠는가 결국 물고니 됐다 [▶] 현대 목조천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별화된 더욱 혹심한 1양 1양으로 유지하고 있다.

내가 스마篷까 절양소에 갔을 때 이런 자 1명이 있었던 어느 날 ^{1월이}
혹양생 한 사람의 송진한 마끼즈를 듣고 와서 "중앙장정양소" 앞역에
"장과 연민이 갈라섰다"라고 대서특필 했던 그때 이 글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무원들이 등에 털 라 이 소설이 연해주전역에 잡간터졌다
이 일 때 ^{에는} 안해주 장미식 로마인이 스마篷까에 왔라 간 일이 있었던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중앙장정양소"로 차들대로 출입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중앙장정양소"라고 안하고 그저 "연해주 스마篷까 정양" 소리
했단다 이들은 바꾸었으나 그 내용은 그대로 오래 남아 있었던다.

내가 해마루스크 외국 끝 망송국에서 일할 때 내와 가까이 지낸 두 사람을
약간 소개하도록 한다. 이 1양 송국은 조선말, 일본말, 중국말, 영어로 1양송
하고 있다. 나는 조선 말 동국을 보았을 때 국 ^한에서 면역원으로 있는 두 단과
일본 1안에서 역시 면역을 하는 다지마와 아주 천연된다.

두 단은 누군가, 이 사람을 한때 만주 부위 전무에게 기술 미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두 단은 나와 한 이 사실을 말하고 각각 등록증과는 이별이 감후고
있었던 그때 때가 그런 때였다. 쏘중 관계가 나아야 찢은 데 중국을
기반하는 "14당의 첨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제작 되었단다 이영화의
주역이 바로 두 단이다. 두 단이 배우는 아내 다그러나 1악식하고 중국 역사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화제작 관국이 두 단을 주역으로 초청
했단다 이 영화를 해마루스크 영화극장에서 보면 면간 상연되었다.
지금은 이 영화를 볼 수 있다

두 단은 낙시질을 꾹척 좋아한다 [◀] 나도 농어 [◀] 좋아한다 그래서 어느 때나
두리서 낙시질을 즐긴다. 두 단은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자비로 즐긴다. 이 사람은 작식도 잘 한다. 나의 90주년 때 두 단이
자청하고 와서 음식을 만들었다. 그때 나의 90년에 찾던 손님들이 어점에서는
중국로리도 잘 하도록 하길래 두 단은 손님들 앞에서 소개했다.

두 단은 없다 그러나 그더니 그더운 자체와 매점은 나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라지마는 이상에서 말한바와 같이 일본만 면역원이라. 라지마는 쓰촨성의
포로다. 해마루스크에서 토로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거슬려 시비리로
도망쳤다 거기가서 살곳을 찾아 헤매다가 1알을 얼구어 큰 밭가락이 떨어
쳤다 그래서 다리를 질렀다. 일본 포로 1명이 해마루스크 그러나자 라지마가
해마루스크 시로 왔다 일본 땅에서 그를 면역원으로 말았다.

라지마가 차츰 측근 10년 역할이 됐다 풋창도 말이 많았라 훌자 살기 너무나
 적어서 러시아드녀성과 동거 했라 러시아드녀성에게 딸하나가 있었던
 는데 라지마가 천연치렀거두어 주고 사랑했라 라지마는 우의점에서 멀지
 않게 살았라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됐라 서로 만나 였라. 라지마도 연금생활을
 나왔라 라지마에게 돈도 있었라 그러나 실수해서 책도 잘 도했라 라지마가
 바를 만난 적이라 수도 책도 읽지를 하라고 청하고 있다. 내가 브라질에서 살면서
 여기서 사는 딸아들집에 갓다가 돌아왔다 그런데 라지마가 브이지 않았을라
 그래서 라지마 집을 찾아가니 일원준이라고 한다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온다.~~
 라지마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 지금도 회원 안 있어라 그런 데 우연히
 일본안 나끼야마^라를 길에서 만났라 내가 그와 라지마의 소식을 아느냐고 하고
 물어보니 나끼야마가, 왜 선생이 모르시오. 라지마가 10년전에 죽었노.
 라지마 양관이 서체를 안 찾아가서 서체 안 치실에서 주입없는 서체라고
 어리다 향장 해버렸라고 한다. 나는 나끼야마에게 써 이 소리를 듣고
 놀랐라. 라지마 생전에 자기의 양관을 그렇기 때문에 늘 미안해 했는데
 양아이지 서체도 안 찾아 갖는가 세상에 험한 사람도 있구나. 이보지도 일본만
 책업자가 라지마가 연금생활 2년간 측근 2가여령까지 사는가 하니 알아
 본적도 없고 10년전에 넓은 줄로 알면서도 일본안미는한 사람도 10년전을
 맞는 데지 않았라 이어서 독한 사람들은 어디 있겠는가 하면 내가 일본에서
 연금 생활로 나온지 25년이 됐라 그러나 누구하나 나의 건강은 좋아졌다.
 보는 사람이 많지 하길 내가 조선 1만 사람들과 그들이 직원들과 자주 만나
 기니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에 몇 건식 블로글도 보낸다 놀여람이
 된 것 같다 라지마^{사망} 이렇게 미참하게 됐다. 라지마의 양관은 더 말할 것
 없거니와 외국어 10종국 총무필의 미인간성을 밝해야 할 것이다.

나는 3년동안 더 일하라가 1973년도에 일본에서 완전히 나왔다. 사람의
 직업 없이 살자고 보니 마음이 형편없는 것 같라 안절무절하는 데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아파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것 같다.

1983년 7월이나의 첫 우기라가 사망했다 이것을 내끼운 하객이다. 그러나
 나는 세째 아들과 살았라 자들도 세째 봄바와 산라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들을 알고 살라 나의 친구들이 나온고
 아직 그리 늙지 않았는데 말을 무를 할 사람들은 드리고 한다. 그러나 친구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지금 시대는 황금시대로 말할 수 있다 듣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을 먼저 볼라 내끼는 돈이 없다 돈이 있는 사람은
 누가 거두어줄 사람인가 있겠는가, 그 살아갈 걱정은 없다 내끼는 친구들과

그들이 있다 죽으면 나를 파묻어줄 사람들이 있다 아걸 때에는 고침할 것 없다

1984년봄에 소풍도 할겸 파스킨으로 간다 이 도시에 나의 딸과 친구들이 산다. 어느 날 저녁에 황성복이 저녁을 갈아 하자고 나를 청한가(황성복은 대일전초시기 무려 나와 같이 조선대 양전에 참가했고 전후 평양에서 아주 가깝게 지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찾아 갔라 집에 들어가니 다른 사람은 없고 주인 혼자 뿐이다 그런데 농오래 있도록 저녁상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주인 묘고 - 누구를 기자리오 - 하니 주인이 - 지금 리산로 선생이 이 도시기와 노소 그문을 기자리오 - 한다. 내가 속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저녁을 차릴 것이 아니라 리산로를 위해서 저녁을 차려주오" 하고 생각해보았다. 한참 일도 라니 리산로가 자기처럼 갈이들여 찾는 주인이 있어서 리산로²의 깨를 아주 반갑게 인사한다. 나도 리산로 꾸취를 인사해보니 다같이 들어왔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 달이 있었던 간접의 내용은, 당신이 더 잘 알겠소 내가 려할 알지 이런 흔적로, 전래 미술의 길 일정 개연독재, ~~국~~^북한민족의 생활관, ^국상전호, 길 일정의 양한 사생활, 북한에서의 인권 몇 차례, 눈제 기학 문제를 가지고 리산로와 황성복이 경쟁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길 일정을 내놓고 어떤 사람의 자기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아嗓크지 꼭 엊언지 한 것은 꾸며내 가지고 북한을 넘나들면서 운사청호를 맡는다 선물을 맡는다 하면서 길 일정을 하나씩 갈이 려 말들고 있다. 왜 그렇게 갈탕 짚장을 하는가, 뛰어 할 작정인가! 세상 사람의 눈은 막라 누구³가 누구인지 똑똑히 살피고 있다.

"극성로함이 내 녀동생이 살고 있다 어느 날 녀동생도 만날 겸 동구들을 대할 겸 이로함을 찾아 갔라 끌호즈 집행부 건물앞에 다같으니 고려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즈메코 등 간사람들이 활라 갔라한다. 내가 26년 전에 이 끌호즈에 앉아 갔다. 그 뒤 만해도 이 마장에서 고려사람들이 웅성거리 엇고 많은 나의 친구들이 나를 안가이 맞아하지 않았는가! 갈 말을 목도로 만든 사람들은 다 아래로 가고 우즈메코를 떠난가⁴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은 개척 했단 말인가! 나는 개척자들의 한사람이다 그 뒤 이래 이 무언지리를 개발하느라고 우리 고려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었는가를 꽂 알고 있다.

이중 영웅 길 14년화가 "극성 끌호즈"의 대원장으로 일을 끄 때 구역장에서 당시로서는 우즈메코를 시키라고 길 14년화에게 내리 놓였고 그려나 길 14년화는 내가 우즈메코 말을 모르는데 뛰어들게 우즈메코를 끌어세우는 걸이 일할 수 있겠는가하고 거절⁵했다 그러한 걸이 길 14년화가

사망 이후 끌호즈 위원장이 누르메코고 강미서도 우즈미코와 지어는 무기장 까지도 누르메코다 말하자면 „극성 끌호즈“가 완전히 우즈메코화 되었라 판이 이될거 되자 이 끌호즈를 건설한 선진 일군들이 하나둘씩 끌호즈를 떠났라 고려인 호수가 거이 300여 호였는데 지금은 30호를 넘지 못한다 하거니 “극성 끌호즈” 뿐만 아니라 다른 고려 끌호즈들도 우즈메코화 되고 말았라. 설마 이 될거야 될수 있겠는가 이것이야 말로 생각해 볼 만한 화제 저리라.

1939년에 (해수가 뚱스쳐 암다) 라스킨트 운하 건설이 시작되었라 이 운하 건설이 고려 끌호즈들이 흥동원했라. “극성 끌호즈”도 이 건설에 참가했라 나도 거기 가서 땅도 파고 운하사업도 했라 그때 있은 한 가지 추습을 사실을 말하겠라. 이 건설장에서 고려 사람들은 쪽찌끼를 저고 흙을 날라 로력 능률을 우즈메코를 보았을 때나 놀랐라 그것도 그럴수 밖에 염두 걸어 라수로 우즈메코들이 둘째를 가지고 흙을 날랐라 둘째는 두 사람의 들어이야 한다. 두 사람이 나르는 흙을 쪽찌끼로 한 사람의 둔이란 했라.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농을 랍간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들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라. “우즈메코가 쪽찌끼를 발견했라. 수많은 건설일꾼들이 쪽찌끼를 저고 흙을 날았하여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것을 말령 한국 공분이코다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 산을 말을 빙 한 공적이라” 소가운다가 꾸러미처럼 드류이다. 낫디 것은 역지로 이렇게 매콤을 수 있겠는가 하기는 고려 사람들의 끌호즈를 봐 매니까 엊그제 쪽찌끼 끌어야 할 줄 나의 알겠는가!

비상에서 말한 애와 같이 “극성 끌호즈”가 완전히 우즈메코를 손에 넣어가자 나의 옛친구들이 하지 않으려고 사내였거나 사내였던 끌호즈에 오래 있은 자비가 없어서 그림으로 봤라. 몇 일 간 더 라스킨트에서 끌라가 하마롭스크로 돌아왔다.

1983년 6월에 길 바르데이 쟈보페예미흐 - 쏘련년금생, 황동세 - 쏘련년금생, 남봉식 - 쏘련년금생, 리운일 - 쏘련년금생, 강상호 - 광화국년금생, 서재욱 - 광화국년금생, 김세일 작가 이산 일공동작들이, 리동희의 기념비를 그네가족들이 사는 우르겐치, 우즈메코 광화국 이전할 것과 중앙아시아의 어느 학교를 리동희의 이름으로 부를 것과, 짜르느스란 크질-오르다에 있는 흥미로운 모양에 기념비를 세울 것과 이 시의 어느 학교와 소년단을 흥미로이 이름으로 부르며 크질-오르다 학교관이 흥미로의 혁명 사업에 관한 구석을 살피

해갈라는 청원서를 쓰려고 중앙의원회서기국에 제출한 바 있다 그후 서기국의 회장은 말았다 그 회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 등록들의 말가를 찬동한다 그러나 중앙당에 자금이 없다 그러나 등록들의 힘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라" 우리는 그때 어떤 회장을 알고 가문의 상황과 중앙당에 두 혁명가의 기념비를 건립할 돈이 있겠는가 이것은 조선혁명가들의 공적을 무시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중앙당이 청원을 쓰려고 하라가 표기하고 말았다.

나는 조선민주동일구국전선위원회의 한 사람이다. 1993년 10월에 워싱턴에서 열린 주국전선 대회와 서울 대회에 참석하였다 이 대회들은 국제적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모두 대회에 대해 쓸 것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그간 문제라 이를 생략한다

내가 살고 있는 하마루스코 시에 대해 짧간 인증하도록 한다 나는 이 도시의 명예를 말하자 는 것은 아니다. 이 도시가 점차적으로 국제도시로 전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하려 한다 지금 이 도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그중에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미국, 그 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온다. 주 쇼트랜드 공화국들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 외국인들의 직업은 다양각색하다. 주로 상인들이다 대학 교수, 목사,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하마루스코 시에 와서 어떤 일을 하든 있는가 미물들이 대답해 보려고 한다.

이 시에 텁영대포루가 있다 대포루의 인원수는 약 40명 후산된다. 한 일년 전만해도 수령과 강을 찬양하는 주호들이 대동건물 1석들에 나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다. 대포루에는 안전루도 있다 안전원들을 텁산사업소에서 도망친 자기 사람들을 봇장느라고 증명하라. 이에 대한 대등적인 설례를 이되어 말하였다 보다리 장수'군들도 그래서 내가 한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보다리 장수'군들과 말래를 일이 있다. 내 뜻이 - 양신들은 1일복공인데 1일복은 안하고 왜 되덟기 장수를 하고 있소. 양신들이 책임자 디히가를 넣고 아침장수를 하오-하니 그 사람을 말이 - 우린을 좋아서 이런 수치스러운 되덟기 장수를 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겠느냐니까 하는 일임이라 우리 책임자들은 보는 책 박는 책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돈푼이나 생기끼 되면 절만은 그들에게 주어야 할니라. - 한다.

이 보다리 장수들 외에 텁산사업소에 활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을 활출자를 이라고 한다. 이들을 이 시에 와서 숨겨 산다. 대개 30살 되는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식솔들이 북한에 있다 활출자들의 말이

이하연 로시아도 땅에 남은 할출자들의 식솔들은 운발제를 안 말고 무한남한
으로 도주한 사람들의 식솔들을 정체를 몰아거나 재판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할출자들은 러시아도 땅에 남아 앉자고 한다. 할출자들의 생활이 아주
곤란하다. 신문증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 나와 같은 을리는 사람들이 그들
도와주고 있다. 어떤 쪽사들도 그들은 돋고 놓다 늘은 아닐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할출자들의 기본생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쓰는 문들이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주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시기상 조건

대표부 안전원들이 할출자들을 못 잡느라고 금금해하고 일하는 실례를
들자고 이상이 떠올랐는데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10월 10일에 체르노볼스카야 거리의 측 85호 주택에서 1명 여진 사건이다.
이장이 할출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다.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 그러나 아직
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다. 대표부 농들이 이 빌새를 알고 이 날
아침 여섯시에 뛰어들 사람이 차를 타고 와서 85호 주택은 풋여쳤다.
안전원 세 사람이 할출자가 사는 땅에 뛰어든다. 안전원 한 명이 할출
자에게 수감을 채우려고 할출자에게 덤비어들었다. 이 사건에 할출자가
자기 결에 있는 식도로 놓싸끼 우물을 짜르고 한 농을 맡길로 차고 물을 끌어
왔다 차기는 할출자도 칸에 경선을 임았다. 피를 흘리면서 달아났다.
생명은 구원했다. 이 할출자는 유탄이 냈을 때 8월 무렵에서 거이
십년 훈련을 맛은 사람이라 몸 냉으로 대량한 사람의 냄새에 물질 어려
왔던 대표부 농들이 짐안에 있는 물건 뿐 냄새를 가자고 돌아
갔다. 이후 대표부 안전원들이 그들의 (할출자) 주소를 대주는 사람에게
3월 물어 상류를 주겠라는 소문을 퍼트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전원
두 사람을 칼로 짜르고 달아난 할출자를 못 찾고 있다. 물건으로 도록 잡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안전한 곳에 가 있다.

이 일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봉연시에 대표부 농들이 85호 짐의
물건들을 훔쳐간 사실을 이장 주인이 재판에 회부하였고 농으로 재판이
임을 것이다 대표부 농들이 방심은 혹혹히 하리라고 본다.

나는 이사를 찾아오는 한국기자, 일본기자를 종종 만난다. 그들이라 할출자들끼
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할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를 해명하자면 체코도문에 와 있는 북한 철암공들의 생활
형편을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도 있다. 지난해 9월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체코도문 책(이나
김미서)가 김일성의 제사를 지내겠지라 꾸하 한 사람을 끼울 사례 하바롭스코로

보냈다 이사람이 이서에 와서 육류, 여류 각각 두 절로 썩, 쑥풀선기를, 술, 차도
기타 식료품을 사 가지고 어느 한집에서 휴숙 했고 그때 한집 이집이 한국사람이
있었고 두 사람마다 같은 조선사람이라 갈이자면서 이야기를 주고 말고 했고
이후에 당시가 자기가 제물 사례로 멀사람의 한국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에게~~ 그를 조국(국한 사람들은 조국이라는 말을 잘 쓴다)으로 축출한 사실이 있었고
국한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만난 것이 죄가 된다는 통일은 어렵게 한라는 말인가
국한에서 지를 놔두고 있는 한반도 통일은 민족공무문이다.

원동의 해고도는 산림속에 봄날의 풍물도는 노예제도라고 했으려니 좋을 텐지, 봉건
제도라고 했으려니 좋을 텐지 모를 제도가 의전이 존재하고 일과 이전은 과정이
아니라고 내용을 따져 보면 그것이 사실이다 국한처럼 인간 차별이 심화 사회는
“이지구상이 없을 것이다. 이제 몇 가지 그 실례를 들어 볼가로하자. 해고도는 기사는
상부(상전)와 하부(노예) 사이에 쓰는 특수한 말이 있다. 즉 상부가 하부를
대할 때, 이사람, 저사람, 이들 깨문이라고 말하고, 이놈아, 저놈아,
너자식, 저자식, 저여는 이색끼, 저색끼 등 만말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년령은 관계없고 상부 사람을 하부로 버리기 험사람이기도 이런
만말을 쓰고 있다. 이것이 노예사회나 봉건 사회가 아니란 말인가,
식사차별이 대체하는 데 말할 여지도 있다, 여기에는 갑목이 있다 당시에
안전원이 자기 아들이 거슬리는 사람을 때리고 갑목에 짐이 떨어지면 그때도
말하는 사람이 있다 김나의 떨고만 있다는 냉망울 놀이가 되는 일이다
이라고 한다. 사람을 찾을 때신에 나무를 려다가 죽었라고 조국에
불고한다. 멀목장에 도풀이나 러열자리가 있다라고 한다 이런 자리에
최직하자면 책상자에게 피리를 놓여야 한다. 상부가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은 생자리에 김스봉대를 차고 조국으로 추방한다. 해고도는
한여명 짐승들이 와 있다 그런데 목욕탕은 하나도 없다 이(혹)가
너무나 그래서 저울이 떨고 짐승들이 내복을 벗어서 이가죽으로 얼굴
자포~~포~~한다. 김일성은 지상학원을 주민이라고 했고 이것도 지상학원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국한 고위층이 말로는 인간을 데리고 일한라고 하지
만 사실은 사람들을 모욕하고 멸시한다. 해고도는 지도층은 이산과 같은
사실들이 많고 서로 새나갈 가마 온갖 조리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 출입이
금지 되고 있다 어느 땅이 들판과 들판을 끊임없이 기사가 해고도문에 가서
사진 활영을 시도하다가 배를 맞고 사진기를 빼앗기 사실이 있었고
최근에 들은 바 해고도는 짐승들이 폭동을 이르길 위협이 있다
해서 일의 일련 짐승들을 대중적으로 조국으로 보내고 가장 신용 있는

립업공들을 고체한다고 한자 현재여기와 있는 립업공들이 다 광의
실사를 말고 온 사람이라 그립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활출자들이 있었라
이번에 고체하는 사람들은 속에도 활출자가 있으리라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 이런 '양식으로는 부정사건을 제거할 수 없다'는 생활수준과
입지를 높이며, 인권을 존중하여, 이생시설 등 이런 원칙적인 문제들을 해결
하지 않고 허령, 명령, 공갈, 액압으로 하는 사회를 도저히 유지할 수 있다.

내가 ..로연에 짐에 앉아 쉬지 않고 "구국신문"을 매달하라니 그게 무슨
로망이오" 하는 데지도 말고 나와 직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일자
나를 아끼어서 하는 말인지, 그립이 않으면 "구국전선"과 "죽리어"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저러나 나는 이런 충고를 알아드릴 수 있다
우는 조선사람이라 애국자라 그레 북한경례들이 도한에 까마제 신을
하는 소리를 듣고도 나리려 수수방관하라는 말인가! 내가 아직 살아
있는 한 북한경례에게 주우일로 말씀이라도 도운이 될다면 알았고 나서
겠다 신을 매달도 계속 하겠라 또 이런 사람들을 그 신들을 매달하라
북한안전원에게 걸리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겁장이 아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내 할 일은 끝나겠는가.

내가 .."구국신문"을 가지고 국제시장"(이시간에 중국인, 북한사람,
미국인, 일본사람 기타 사람들의 입으로 해서 국제시장이라고 무른다)
그로 왕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이시장으로 자주 듣기 이에
상인들이 내린 목록이다. 나는 주로 북한 몰라리장사'군'들에게 신문을
준다. "이신들이 어리석 말간 되는가하고 물는다 나는 .."북한에서
'알랭린'라고 하고 있는 퍼한다. 중국에서 온 조선사람들이 .."구국신문"을
좋아한다 또 가지고 오라고 나와 말한다.

내가 고체하는 낙서질 철도 아래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라고 기장을 재미도
있거나 와 북한사람들과 말하는 재미도 있다 이제 그런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우리 짐에서 한 30분간 걸어가면 강한이 있다 여기에 100명
활타 100명에서 내린지는 무스터리를 주여 먹느라고 고기들이 잘 살며든다 땅에
낙서질 글들이 이 간만으로 고기 낚주로 올라. 이 강안에서 북한립업대통무가
가깝다 그래서 대표무사람들이 여기와 고기를 잡는다. 우는 이에 관심을
두었라 이 만에 와서 낙서질도 할 겸 저 북한사람들과 만나 이이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꿩 먹고 살 먹는 법이다. ~~여전히 학부모는~~
~~고기와 함께~~
~~사람들의 주의를~~~~한~~~~가하고 생각한~~~~결과~~~~구국전선도 해화,~~~~평양-~~

어떻게 하면 낚시질 하려 나온 끝한 사람들의 주의를 끌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
한 결과 아름지하기로 했다

대포무 사람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이 강안으로 낚시질 하려 나온다 낚시질
하여 한두 사람들은 다 간부 혹은 이라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라 그래서 내가
여느 한 일요일에 낚시도구를 가지고 강변으로 나왔다 살펴보니 낚시질꾼들이
많아 대포무 사람들이 앉은 사이에 면자리가 하나 밀어 거기에서 여기 앉아도
좋겠습니까 하니 한 사람이 앉으시요-한다 낚시질꾼'은 철 인사가.. 고기가
잘 잡힘니까" 다 그래서 두드렸을 인사를 하니 한 작자가 - 그 악지 않습니까-
한다 낚시도구를 험히 놓고 낚시어 머리를 깨여 물에 던졌다 좀 있다가 내가
가지고 간 "령양-노쓰코마" 그래가 루을 털 화중 루을 기른 흘러 놓고 듣기
시작했다 내 곁에 앉은 사람들은 나를 헐굴 헐굴 살릴라 나는 그 눈치를 봄
본 척하여 노래를 계속 듣는다 .. "령양-노쓰코마" 노래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자루와 땅화를 사랑하고 하락한 쇠레흐 준대는 내 조국을 건져준 능례의
해양군 영원한 우리의 멀 영광이 있다라. --

이 노래를 재차 들노라니 낚시질 구경을 나온 한 사람이 내 옆으로 앉아온라
나니가 한 사람의 보이도 이 사람도 뜻처럼이나 걸을걸 아들 몇아도 가벼운 아치가
흘렀었다 이사람이 누 보고-령간님 고기가 잘 끊습니까? - 한다 - 내가
- 잘 안 끊나고 그래서 노래를 듣습니까? - 하니 그사람이 - 령간님 지금
듣고하시는 그 노래를 어디서 주했습니까? - 한다 내가 가지고 올려온 거예요-
하니 이 사람이-령간님 지금 그 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한다 그래서
내가 - 노래도 듣는 법이 없나요- 해다 이런 대화가 그와 계속 했라.
이사람이 "령양-노쓰코마"를 듣고 무슨 자극을 받는 것인지를 알았다.
물을 이런 언젠가 맛이 속치하고 부은 한걸 깔라 그러나 나는 이소한 흐파
나마 일하고 물라. 누가 무어라고 하던지 나는 널드로로 이런 일을 계속 한
여정이다

무한에서 일을 안하고 왜 쓰로연이 되돌아 왔나?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질문에 간간히 대답하였다

이 물들이 육도 대장을 주려고 1950년 대에 국조선에서 조성된 정까를
대통 말해이다 한하고 물라

쓰느 달릴 개인승마 시기기 쓰로연 선들이 철의 장막에서 살았라
언진, 짐회, 출단, 결사자수는 1만명이 그걸 끌니었라 여느 한 사람도

자유를 향유할 적이 없다 쏘련 사람들이 해외 망종을 들은 자극.
해외 출판물은 주목할 자유가 악한 했라 사람들이 깨찌정씨를 놀르고
쓰랄린 맨세만부르고 살것이 사실이다 지금 꼭조선에서 쓰랄린 개인독재
문란 더 가혹한 혐해로 계속 되고 있다 일제시대 때 괴롭는 이 조선
인민의 자유를 막았던 육군책과 같은 오늘에 와서 북한에서 제 사람에
제 사람을 한암하고 학살하고 있다며 여전히 계속 될 수 있다

1953년에 쓰랄린이 죽었다 그려자 쓰랄린의 개인술매가 폭로
되기 시작했고 1955년에 쏘련 풍산당 제20차 당대회가 브스크마
에서 개막했다 이 대회에서 브루소프가 대답하기 쓰랄린 개인
술매를 독립 했라 그려자 그를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쓰랄린 개인술매를
도로 한 쓰랄린 고산당 20차 대회의 결전을 지지 했다 그러나 브루소프
김 일성은 이 결정은 지지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의 쓰랄린 개인술매의
충돌은 제자들이 기재들이나 소중관계 나마 자기 시작 했라
긴 일신은 미흡을 하여 만족, 철중 전책을 시작로 보니 쏘련
군대가 꼭조선을 해방한 것이 아니 와 액수 산이 주둔 했던 조선
연군이 꼭조선을 해방하고 영역이 있고 탄핵된 역할에
맡았고 꼭조선의 군 도시를 특히는 항구 도시 원산시에 김 일성의
죽동상을 세웠던 뒤 놓고 1945년 8월에 일본군을 해방시키고
이 도시가 학률 노보라는 전래미술의 거짓 말을 주여내 가지고 자기인
특리는 아예 다른 속이고 였라 사실은 김 일성이 경무대가 목선주에 올라가
일본군이 흐르며 알뜰한 곳이 있어서 살길을 찾고 1945년에 산련
국경을 넘어와 해마류스코모든 1야드쓰고 예술작가와 살았다가
1945년에 꼭조선이 해방된 이후 흥한 만도 끗 쓰아보고 쏘련
군대는 9월 19일에 원산항에 내린 것은 말안주지의 사실
이라

1955년에 연군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량의 시장위원회장을
둘 풍흉, 직총 중앙위원회 위원장 서희, 문화선전성 부상 김강그
같이 조동당원들이 우리당에 개인술매가 있다고 비판 했라
그려자 김 일성이 손을 쓰는 바람에 풍흉, 서희, 김강이
말중에 중국으로 옮겼던 뒤 이런 일이 일자 김 일신은 자기 말판이
뒤흔들리자 가파로운 경사에서 개인술매를 만드는 사람들의 경단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그들을 꾸준히 하며 한방 헬리콥터 같은 항공기들이 출발되고 육로 차량들은 출발된다.

14로 이 때에 중국공산당 대회가 북경에서 열렸다 이 때 북조선에서 수많은 간부들이 수형되고 옮다는 보고를 듣고 팽력회를 북조선에 파견하여 사태를 마로 장기로 끊었다 쏘련에서는 미끼연이 북한으로 왔다가 김일성이 미끼연과 팽력회의 조언을 듣고 출발한 날은 당원들은 보람사로웠다 그러나 미끼연과 팽력회가 북한을 뛰어나자 김일성이 불이나기 자기의 측근자들을 모아 놓고 쏘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이 조선을 통감 내정에 간섭한다고 아주 분개해버렸다

1957년에 흔쓰코마에서 각국공산당 및 혼동당 대표회의가 개막
된 바 이 회의에서 동양화와 전쟁 당의 전략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차이로 하여 몇 학동이 고집됐다 이 절개의자
는 학동이 무정이 돌아와 팽격회를 김 일천에게 보내며 중국공산당이
조선 혼동당 무정이 간섭됐다는 것은 사격하고 김 일천을 하단에 안
무정으로 혼청했고 김 일천은 이 혼청을 알고 중국에서 돌아와 더
는 뿐에게 “사상전”라는 낙阵营 놈은 간만 주로하여 대짜한 사람
들은 대중적으론 혼동당하기 시작했다 김 일천은 몇 학동의 미호하여
“수정주의” “대국민화주의” “국민화” 같은 정책을 폴적으로 전행했다

1955년 10월에 김 일신은 소위 "주체사상"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을 때 알고 보면, "주체사상"의 진짜 내용은 민족주의이며 쓰러진 혁명의 정책을 계속 한것이라 김 일신은 빠르게 민족의 하는 말은 말 끝까지 하지 말 사실 "주체사상"은 빠르게 민족의 하는 아득한 민족으로 돌아온다.

쓰다닐건이 깊일심을 끌었는데 깊일심이 만쓰면 했는가
하는 눈이 생길라 이상에서 말했지만 쓰다닐건이 눈은 같자
흐르셨브가 쓰다닐건의 개인승매튼 푸른하는 마찰에 깊일심은
자기 말등에 물이 떨어질가봐 겁을 짚어 막고는 책등의 암호
하여 육선 쓰려면 어려운 간극들을 늘조리 침산하기 시작^을 보니
소년 간원에서 광활원으로 광활에서 쓰려면 광산같은 절이 된
쓰려면 간극들을 만쓰정선으로 고양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깨
각을 깊일심은 쓰려면 어려운 간극들을 ~~쓰려면~~ 고약금마의 ~~쓰려면~~

일자리에서 쫓아 냄고 그들에게 날로 흰 죄를 씌워 추옥하고, 정마를 끌어고
시어는 총살까지 했라

이에 대한 몇 가지 실태를 들어보기로 하자.

김 일성의 전진 사상과 그들이 이전 들판 양당 선전부 장(각 청부),
문화선전부 꾸상 기획부, 정률, 충남 강원전부에서 일하던 간부들
로 통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박정애, 백작 꼭수상 박이완, 이 많에 땅도
사람들이 거친다 허가여가 말로는 자살 했라고 하지만 사실은 암살
됐다. 박정애 (일제 시대 때 국제공항 당시 대경으로 지하공작) 본명은
최(최라) '부정애' 데다가 일제 때 지하공작을 한 데이 라는 것들은
흔히 사람의 업적을 김 일성이 러 달릴고 일자 그전에 박정애의
마지막 운명이 어찌 뛰어 넘었는가? 간단히 말해 보자 김 일성은 박정애
를 조선로 통당 중앙위원회 미시직에서 잡아 놓고, 박정애가 통영상
으로는 정당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알면서 고의적으로 박정애를 통영상
직에 보내 끌고 올라 안 왜서 그가 옮은 잘 못한 데고 러니 머렸다
오후 박정애의 운명이 미물령학자

이전 상암동위원회 위원장 김 두봉을 어제 뛰어 살해했는가

이 봉은 쏘련에서 온 봉이 아니라 연안에서 온 봉이다. 학자라 김 일성은
민족들의 선자를 말하는 김 두봉 선생을 공화국 현역은 절 알았고 자기
마을 대로 그를 농촌으로 끌어 달려 놓았고 그에게 끄개소를 주어 결국
소가 말아서 죽음을 떠났다 김 두봉은 그만들 학살 당했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저와나 이것이나 말로 중 세계적 야만 행위라

여름 날 작가 한 설(설), 리해준, 등 빛이 아름을 러 러 푸른가수 최승(최승),
한 빛가 신불 출 그 막에 많은 문인들, 예술인들이 학살됐다 이런
실태는 러 계속할 수 있다

이전에 외들을 수백 명 조선혁령가들을 추옥하고 살해 했다면
지금은 김 일성이 과거 혁령가들은 조조리 없애 버리고 일자 저이는
자기의 젊은을 까지도 수형하고 일자 김 일성은 자기미끼에 조급한
기술 전략으로 부주나 할 것 없이 갈 속에 죽고 죽인다 개인을 깨어
후파가 마을로 아탈라 목조선(목조선)은 갑우이다. 백성들은 총칼이 쪽지
되어 보면 서도 말을 끊하고 일자

'보라! 수라장 같은 이런 무사무사한 환경 속에서 어제 뛰어 일할
수 있었는가. 아침쟁이들, 제 양심을 파는 늑들, 추무의 티'

69

매일 자율만이 깊임성, 깊정입니다. 만세를 외치면서 언어들의 피를
맡아 먹으면서 살 수 있다

지금 까지 나는 새 봉로선에서 찾는가 하는 물들이 대충 대답해보니
여겼이라는 아니라 말은 다 할 걸 잘이나 나의 아름에 놓친건이
아직도 많이

이상으로 끝난다

南鳳植

4월 30일 1995년.

하마롭스크.

700125. г. Ташкент,
ул. Сайдулина, 5
Тан Хаконч

680020. г. Хабаровск
ул. Мордовский перекр.,
дом 5, кв. 64
Надежда